



PSAT

단기완성을 위한
기초기술



언어논리

 에듀월

01 | 언어논리 예시문항 분석(2019.12.10. 공개)

01 총평

2019.12.10. 7급 PSAT 언어논리 시험의 예시문항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1차 관문으로 출제되어 온 PSAT 언어논리의 기본적 흐름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기출 문항들보다 실무적인 주제의 지문이 출제된 것이 특징적이다. 아무래도 공직 사회의 허리를 담당할 7급 공무원 선발시험답게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용도로 본 시험이 활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문항의 유형은 빈칸 채우기 유형의 문항 2문항, 유사한 내용·사례 찾기 1문항, 판단하기 1문항이 출제되었다. 예시문항의 특성상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적 이해 유형의 문항을 소개하기보다는 특징적 형식을 가진 유형의 문항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시문항의 지문이 실용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실용문만이 시험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PSAT 언어논리는 어떤 지문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출제 지문 내용의 장르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5급 공채, 입법고시 모두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

더불어 예시문항의 난이도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기출 문항과 유사하고 5급 공채나 입법고시 기출 문항보다는 확실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기출 문항 수준의 난이도로 학습을 하면서 고난이도 문항의 출제에 대비하여 5급 공채나 입법고시 기출 문항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학습하는 것이 올해 첫 7급 PSAT 시험의 대비법이 될 것이다.

02 예시문항 분석

Q1. 다음 (가)에 제시된 <작성 원칙>에 따라 (나)의 <A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작성 원칙>

- 보도자료의 제목 및 부제는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첫 단락인 '리드'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본문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하거나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나) <A시 보도자료>

㉠ 봄철 불청객 '황사'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대응 체계 강화와 시민 행동 요령 안내 등 철저한 대비로 황사 피해 최소화 -

㉡ A시는 매년 봄철(3~5월)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시는 황사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매년 봄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황사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황사 관측 일수는 6.1일이며, 이 중 5.1일(83%)이 봄철(3~5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A시의 황사 발생 일수는 4월에는 평년(1.9일)과 비슷하겠으나, 5월에는 평년(2.5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 최근 중국 북부지역의 가뭄으로 평년보다 더 강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A시에서는 황사 발생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후 상황 전파, 도로변과 대규모 공사장 물 뿌리기, 진공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등 체계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⑤

|문제 유형| 비판적 이해 > 빈칸 채우기

|접근 전략| 보도자료의 작성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보도자료의 침삭 및 수정 내용을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으로 풀이한다.

|지문 분석| 제시문 (가)의 <작성 원칙>을 제시문 (나)의 각 항목에 대응하여 선지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문 (가)의 <작성 원칙>들을 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의 <작성 원칙>

- (1) 제목 및 부제: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
- (2) 리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핵심 정보 제시
- (3) 본문: 제목과 부제에서 드러내고 있는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제시
- (4) 불필요한 잉여 정보를 포함 X, 동일 정보를 필요 이상 반복 X
- (5) 정보 전개에 필요한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적절하게 제공

| 선지 분석 | ① ㉠을 '불청객 황사,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입니다'로 수정한다. ➡ (X) 밑줄 친 ㉠은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작성 원칙>에 부합한다.

② ㉡은 아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X) 밑줄 친 ㉡은 리드 부분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서술되었다.

③ ㉢에 최근 30년간 한국의 황사 발생 관측일수를 도표로 제공한다. ➡ (X) ㉢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보다 잉여 정보인 30년간의 황사 발생 관측 일수가 포함되어 있게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④ ㉣에 이어 중국 북부지역 가뭄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추가한다. ➡ (X) ㉣의 중국의 대처 방안은 우리나라 대처 방안을 논하는 보조자료에 담기는 잉여 정보로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수정이다.

⑤ ㉤에 시민들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과 그 안내 계획을 추가한다. ➡ (O) ㉤은 제목 및 부제에도 부합하고 반복되는 내용도 아니며 잉여 정보도 아니므로 빈칸에 채워넣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Q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2019년 7월 17일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기본 정보는 조회할 수 있는데, A의 연구 업적 정보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을: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자정보망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인은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는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갑: 학술연구자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추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무슨 문구가 표시되나요?

을: 조회 화면에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해당 연구자의 업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업적 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해당 민원인께서는 무슨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갑: 문구 표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문구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술연구자의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과 업적 정보 집적률은 현재 얼마만큼 되나요?

을: 2019년 7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정보 제공 동의율은 약 92%입니다. 동의자 대상 업적 정보 집적률은 약 88%고요. 동의한 학술연구자가 10여만 명에 이르러 자료를 집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2019년 8월 말까지는 정보 집적이 끝날 겁니다.

갑: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난이도| 하

|정답| ②

|문제 유형| 비판적 사고 > 빈칸 채우기

|접근 전략| 갑이 을에게 학술연구자 A에 대한 민원을 질의하였고, 을의 대답에 그 해답이 있다. 을의 대답을 통해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면 된다.

|지문 분석| 학술연구자정보망에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검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갑이 을에게 묻고 있다. 을의 대답에 따르면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아직 정보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둘 중 어느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선지 분석| ①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2019년 8월 말이 되면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조회될 것이다 ▶ (X)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②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O) 을의 대답으로부터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둘 중 어느 이유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갑은 두 원인 “X 또는 Y” 때문에 A의 연구 업적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③ 현재 학술연구자 A는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그의 업적 정보가 현재 집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 (X) A의 동의 여부는 위의 대화에 언급되지 않았다.
 ④ 지금은 조회할 수 없지만 만일 학술연구자 A가 연구 업적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 한 달 안에는 그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X)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늘’은 7월 18일이고, 동의한 학술연구자의 연구 업적 집적은 8월 말에 끝난다.
 ⑤ 오늘 다시 학술연구자 A의 연구 업적 정보를 조회한다면 “해당 연구자가 상기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것이다 ▶ (X) A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동의를 했지만 집적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없다.

Q3.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직인 갑은 만 3세인 손녀의 돌봄을 위해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갑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그러자 갑은 ○○시가 제정한 다음의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난이도 | 하

정답 | ㉡

문제 유형 | 비판적 사고 > 유사한 내용·사례 찾기

접근 전략 | 갑이 조례에 따라서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고, 운영규정에 따라서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없으므로 운영규정을 조례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운영규정과 조례가 동일해지는 조건을 찾은 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선지를 찾아야 한다.

지문 분석 | 운영규정과 조례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5조(회원) ① 본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이다.

③ 회원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직장 재직자
2.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운영규정과 조례를 서로 대조해보면, ① 회원등록이 되어 있고, ②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시 소재 직장 재직자는 두 규정이 동일하게 대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규정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이라고 하여 친부모만이 대여가 가능한 반면, 조례는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라고 하여 조부모도 대여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선지 분석]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 (X)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 (O) 같은 대상 아동의 친부모가 아니라 조부모이다. 따라서 같이 대여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이 변경되려면 조례처럼 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대여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즉 ②처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X)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 (X)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 (X)

Q4. 다음 글의 ㉠~㉥에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한 곳을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일까요?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인 경우, 이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내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과 달라 거짓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라기보다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결과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 의도적 거짓말로 정의할 것인가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에 더 잘 맞는 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짓인 말’과 ‘거짓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도 구별되어야겠지요. 가령,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바와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사람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라고 믿는다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사실과의 일치 여부로 보면 참말을 한 셈이지만,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자신의 믿음대로 말한 사람과는 다른 의미에서 참말을 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는 우연히 진실을 말했다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자신이 믿는 바대로 말하려고 했고 그 결과 진실을 말한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③

|문제 유형| 비판적 사고 > 판단하기

|접근 전략| 글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고 모순되는 내용의 선지를 찾아야 한다.

|지문 분석| ‘의도적 거짓말’(주관적 의도가 거짓이었고 객관적으로도 거짓)과 ‘결과적 거짓말’(주관적 의도는 참을 말하려 했으나 객관적으로 거짓)을 서로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우연히 참이 된 말’과 ‘참말’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각 대립구조의 축에 따라 지문을 분석하여야 한다.

|선지 분석| ① ㉠을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로 수정한다. ➡ (X) ㉠은 의도적 거짓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이 적절하다.

② ㉡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요’로 수정한다. ➡ (X) ㉡은 결과적 거짓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이 적절하다.

③ ㉢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참이라고 믿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로 수정한다. ➡ (O) ㉢은 결과적 거짓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수정된 내용이 적절하다.

④ ㉣을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모두 참말과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로 수정한다. ➡ (X) ㉣은 의도적 거짓말이 결과적 거짓말보다 거짓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과 부합한다 점을 서술하는 지문의 내용이 보다 적절하다.

⑤ ㉤을 ‘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 (X) ㉤은 우연히 참이 된 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이 적절하다.

02 | 언어논리 고득점을 위한 생활습관

01 다독(多讀)

언어논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확한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정교법(正攻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독(多讀)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많은 양의 독서를 해 온 사람에게 언어논리는 어려운 과목이지만은 않다. “나는 거의 공부하지 않아도 언어논리 점수는 잘 나온다.”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소 입시나 시험 위주의 학습을 해온 수험생에게 다독(多讀)의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도 갑자기 이를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텍스트가 쏟아지고 있으며, 기본부터 다지며 준비하기에는 수험생활 동안 소화해야 할 공부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도서들을 수험생활 틈틈이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길고 지루한 수험생활의 막간을 이용하여 아래의 도서들을 한 권씩 찬찬히 읽어 나간다면 조금씩 자신의 독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철학	사회과학	예술·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진경/그린비) · 논리와 비판적 사고 (김광수/철학과현실사) · 국가 (플라톤) · 자유론 (밀) · 창조적 신화 (베르그송) · 논리철학논고 (비트겐슈타인) · 정의론 (플라톤) · 흐름으로 읽는 동양철학 (이종우/보고사) · 논어 (공자) · 한비자 (한비자) · 장자 (장자) · 맹자 (맹자) ·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통론 (최종고/박영사) · 인권법 (이준일/홍문사) · 범죄와 형벌 (베카리아)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 순수법학 (켈젠) · 법철학 (라트브루흐)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 푸른나무) · 맨큐의 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교보문고)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 국부론 (아담 스미스) ·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 ·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통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르놀트 하우저/창작과 비평사) · 미학 오디세이 (진중권/휴머니스트) · 시학 (아리스토텔레스) · 서양미술사 (곰브리치) · 무진기행 (김승옥) ·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 붉은 방 (임철우) · 카프카를 읽는 밤 (구효서) ·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 은어낚시통신 (윤대녕)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 외딴 방 (신경숙) ·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독서의 생활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독서를 하는 방법이다. 중고교 시절 교과서로만 배우고 외워서 사용한 독서의 방법들을 실제 응용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이 방법들이 바로 언어논리 문제풀이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언어논리 문제풀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독, 발췌독, 정독의 세 가지 독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통독

통독이란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읽기 방식이다. 스포츠나 패션 잡지를 읽을 때 글의 내용을 모두 읽는 정독의 방식을 쓰지 않고 눈으로 훑어보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관심이 있는 텍스트에서 이러한 읽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글의 주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논리 문제풀이는 절대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으려고 하기 보다는 통독의 방식으로 빠르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부터 지문 구조에 기반을 둔 통독의 방식을 훈련해 보자.

읽기 연습

Q. 아래 글을 2분간 훑어보고, 대강의 내용을 주어진 공란에 기재하시오.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대화와 토론을 일삼는 그를 반기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확실한 개념을 유도해주고 해답에까지 이끌어주자 만족스러움을 얻기에 이르렀다. 또한 사심 없이 진리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성과 지혜를 쏟는 소크라테스의 자세를 옹기여기기 시작한 많은 제자들이 그와의 대화와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다. 제자들의 수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로 하여금 '참지혜와 진리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는 정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소크라테스가 어찌서 독약을 마시는 사형을 받아야 했는가? 일부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 반(反)소크라테스 학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지나치게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거기에도 일부 동의할 만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끌어간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사상의 문제만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당시 높은 존경과 평가를 받았던 만큼 그를 마땅치 않게 여기던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우선 그가 스승으로서 크게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와 명성을 잃게 된 많은 동료 소피스트들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아테네 밖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슬하로 모여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어떤 예언자는 당대의 유일한 스승으로 소크라테스만이 남을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명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곤 하였다. 또한, 상당히 많은 사회 원로 인사들도 소크라테스가 지나치게 사회조직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당시 원로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부모에게도 대들면서 대화를 감행하며, 심지어는 아버지를 질책하고 구타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내세우는 대화 때문에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그린 것이다. 종교계 인사들 역시 소크라테스가 신화의 주인공들은 논급하지 않은 채 도덕적 신관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종교계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악감정이 반소크라테스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소크라테스를 범정에 몰아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게 된다. 그 재판과 처형과정에서 벌어지는 소크라테스의 생사관, 종교관, 애국적인 법질서관, 인생관 등의 여러 면모는 플라톤의 대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크리톤」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관례대로 스승을 국경 밖으로 탈출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도시국가의 국경선은 가까운 데에 있었고, 그 경계선만 넘으면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과 지성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그와 같은 계획을 책망하였다. 아테네의 법에 충실하라고 가르친 본인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조용히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쪽을 택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그 당시로 말하면 지중해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아테네를 떠났다. 그를 대신할 만한 사표로서의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의 처형과 더불어 아테네는 학자나 사상가가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아테네를 떠난 소크라테스의 원로급 제자들은 제각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학설들을 전개시켜 소크라테스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해설|

상기의 글은 도입 단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의 주요 주제를 구성하는 지문이다. 대부분의 지문은 도입부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의 주제가 된다. 통독을 할 때는 그러한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풀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어쩌서 독약을 마시는 사형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며 빠르게 그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통독의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내리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대답은 소크라테스가 기득권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2 발췌독

발췌독은 지문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찾아내서 그 부분만 읽어내는 방식이다. 사실적 이해 유형의 문항, 특히 밑줄 친 부분의 사실적 이해 유형의 문항을 풀이할 때 활용하면 문제풀이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읽기 연습

Q. 아래 글에서 ‘관벌레의 순환계’를 설명한 부분을 찾아 모두 밑줄을 그으시오.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00미터 가까이 되며, 심해저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일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의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잠수정 앨빈 호를 이용하여 동부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에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하였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 색의 깃털 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해설|

넷째 단락에서 우리는 관벌레의 순환계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낼 수 있다. 발췌독은 이처럼 문항의 발문과 선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밀하게 찾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이라 하겠다.

3 정독

정독은 가장 기본적인 읽기의 방식이다. 지문의 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어내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차분히 독서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언어논리 문제풀이에서 통독과 발췌독의 방식을 추천하지만 정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통독과 발췌독이 정확하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독해 훈련의 초반에는 정독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 연습

Q. 아래 글을 꼼꼼히 읽고, 분석한 내용을 주어진 공간에 도시(圖示)하시오.

현대자본주의의 위기구조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본주의의 축적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 및 정치·경제적 조직 메커니즘의 특징을 흔히 ‘포드주의(Fordism)’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원래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가 채택했던 대량생산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생산방식이 곧 다른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국 대부분이 이 생산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단지 생산하는 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소비양식, 축적양식, 노사관계, 국가정책, 국제관계, 그리고 나아가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차 대전 후 선진자본주의국들의 축적양식 및 정치·경제의 조절기구를 일반적으로 ‘포드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포드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량생산방식이라는 점이다. 20세기 초까지의 자동차는 주로 장인적 숙련 노동자가 수공업적으로 생산했으므로 생산원가가 너무 높고 제품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으며, 가격이 매우 비싸 일부 부유계층만 타는 사치품이었다. 헨리 포드가 이러한 수공업적 생산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대량생산방식(mass production)이었다. 포드는 1908년 T형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자동차가 그 위를 흘러가도록 하고, 노동자들은 각자 고정된 위치에 서서 부품을 조립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창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라인’의 도입으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자동차 한 대당 조립시간이 종전의 12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제품만을 생산하는 각종 전용기계(專用機械)의 도입, 부품의 표준화 등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생산하게 된다.

둘째, 테일러주의(Taylorism)적 작업편성이 이루어진다.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인력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노동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테일러주의이다. 테일러주의란 미국의 과학적 관리운동의 창시자인 프리데릭 윈슬로우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가 제창한 일련의 노동인력 관리방법을 가리킨다. 그는 노동자의 작업을 스톱워치 등으로 세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과 동작순서 등을 연구한 다음(이를 시간연구·동작연구라 한다), 이를 표준화하여 전체 노동자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산을 구상하고 조직하는 사람(예컨대 엔지니어, 생산조직-기계설비유지 요원 등)과, 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직공(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반숙련 육체노동자)을 분리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의 합리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자들의 작업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불하는 차별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열심히 작업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대량생산에 대응하여 대량소비가 이루어진다. 이제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 가능성이 증대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량소비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가 표준화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상품 가격이 싸져야 하며, 다음으로 소비자의 대부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 이들이 구매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성 상승의 성과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생산성 연동 임금제’가 이것을 보장한다. 그 결과 고생산성-고임금체제가 성립하며 이를 통해 대량의 유효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다. 포드주의 아래서 대량소비는 비단 상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대중서비스, 대중문화, 대중예술, 대중스포츠를 탄생시켰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중소비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넷째, 노사 간의 타협체제가 성립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포드주의의 성립은 고생산성-고임금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측이 서로 일정한 양보를 하여 타협하여야만 한다. 즉 노동 측은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고 노동인력을 테일러주의적으로 편성할 권리를 자본 측에 양보하는 대신, 자본 측은 강력한 중앙집중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제 고용주와 노조는 서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관계를 규제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도, 단체협약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노사관계를 ‘노동협약(labor accord)’이라고 부른다.

다섯째, 복지국가체제가 성립한다.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항상적으로 개입하여 지나친 불황과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안정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또 임금 노동자가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력을 유지하도록 국가는 실업보험, 의료보험, 노후보험 등 각종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꾀한다. 이러한 체제를 복지국가체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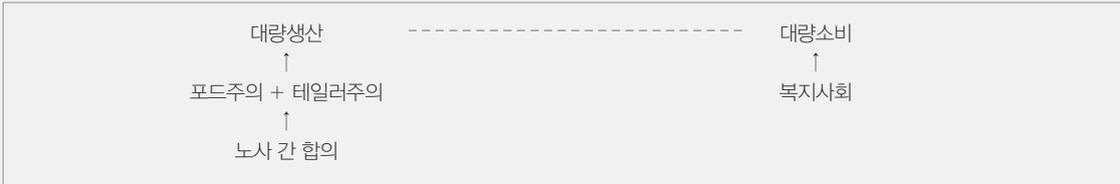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실현과 더불어 ‘테일러주의의 수용-생산성 연동 임금’의 수용을 핵심으로 하고, 단체교섭제도와 더불어 호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가 결합된 것이 바로 포드주의이다.



|해설|

이 지문을 지문에 표현된대로 단순 열거형 지문으로 분석한다면 이는 지문의 외형에만 집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서 매우 잘못된 지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단순 열거형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짙게 짜여진 형태로 서술된 지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가 대량생산의 기반이 되고 대량생산에 대비되어 대량소비가 등장하며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를 성립시킬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 대량소비가 지탱되도록 복지사회가 나타나는 구조로 지문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도시화하면 아래와 같다.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어낸다는 것은 상기와 같은 지문의 구조를 지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기와 같은 지문 구조의 도시화를 통해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 글을 쓰는 과정을 거친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해보았던 개요 작성은 사실 글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논리는 지문에서부터 이러한 설계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02 다작(多作)

모든 언어는 활용을 할 때 그 능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된다. 영어 학습을 할 때에도 영어 문법 등을 착실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영어 표현을 말과 글을 통해 더 사용해 보는 것이 실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우리말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지문 구조 등을 작문(作文)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평범한 개인도 자신의 글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며 모든 사람에게 글쓰기가 친숙해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문보다는 단문 위주, 논리적 완결성보다는 선정적인 감수성을 가진 글을 쓰는 것은 독해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글쓰기는 더 이상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쓰고 타인에게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작문을 통한 언어논리 학습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문 위주의 감각적 글쓰기에만 열중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험생의 언어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처음 글을 쓸 때는 블로그 등 친숙한 방식에서부터 시작하되 단문 위주가 아닌 장문 위주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을 쓰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영화를 보고 온 뒤 나름의 영화평을 웹상에 기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논지 전개 기법을 활용하여 작문을 생활화한다면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작문 연습

Q. 최근에 관람한 영화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십시오.

- 일시:
- 영화 제목:
- 영화 줄거리:

- 주요 비평 내용:

03 다상량

깊이 있는 지문 분석을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문 분석의 기법과 문항 유형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 사고를 묻는 최고 난이도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 및 문항 분석 능력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의 풀이 능력은 개개의 수험생이 지닌 사고의 깊이 차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평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고 사고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같은 현상의 경우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고 연습

Q. 다음 두 글을 읽고, 주어진 공란에 대답하는 의견을 정리하십시오.

(가) 이번 국가에서 군가산점제의 제도입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약 40년간 시행되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그렇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도의 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고, 2008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이번 군가산점제안은 현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점의 비율을 3~5%에서 2%로 낮추었고, 응시 횟수의 제한이나 그 대상의 폭을 확대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비복무자를 차별하며, 현제가 당시 결정한 것도 제도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공직 시험에서 경쟁 대상이었던 여성이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동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과도해 경쟁 상대방의 공직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연금 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들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산점제가 제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 김상경, 「군가산점제 부활」, 세계일보 -

(나) 병무청이 군가산점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병역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속병 든 사람에게 반창고 발라주고, 아프지 말라는 격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병역비리가 가산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가산점의 정도를 완화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가산점의 정도에 있지 않다. 군가산점제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 은폐하는 '나쁜 정치'의 결정판이라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산점은 실질적 지원이 아니며, 기껏해야 심리적 보상을 통한 '플라시보(가짜 약)' 효과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 가짜 '약'의 처방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이 된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제 찬반이라는 논쟁의 회로에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출구가 없다. 복무기간과 복무형태는 걱정할 것인지, 현재 장기복무자에게만 지원되는 교육비 감면과 대부, 의료보호 등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군복무자 전원에게 확대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징병제도가 불가피한 것인지, 유의미한 논쟁은 이런 문제에 있다.

- 정정훈, 「군가산점제 부활」, 세계일보 -

(가) 의견:
근거:

(나) 의견:
근거:

|해설|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비교·대조의 형태로 구성된 두 개의 글이다. 비교·대조 형태의 경우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두 개의 생각이 완전히 평행선을 가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글의 경우 군가산점제 재도입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찬반의 입장을 띠고 있다. 그러나 두 글 모두 ①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②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당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군가산점이 과도해서 위헌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란 의미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03 | 언어논리 지문의 기본 구조

글은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논리에 출제되는 하나의 지문은 평균 4~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락 역시 4~5개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이들 문장과 단락은 결코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지문 분석의 출발점은 이들 각 문장 및 단락의 유기적 연결 체계와 층위를 구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모든 단락과 글은 대체로

{도입 → (주제 ← 근거)}

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도입 문장' 또는 '도입 단락'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여 필자의 생각에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제'는 필자의 중심 생각을, '근거'는 주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락이나 글에 따라 도입·주제·근거 문장 또는 단락의 위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형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심 문장 또는 중심 단락이며, 중심 문장 또는 중심 단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언어논리 지문 독해에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다양한 단락의 주제문을 찾는 훈련을 통해 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제문 찾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주제문 찾기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지문 분석의 기초인 주제문 찾기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IP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분석의 기본 이론은 초·중·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실제의 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내신시험을 위한 암기에 그쳤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배웠지만 잊고 있었고 알아두면 지문 분석에 도움이 되는 글의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 몇 가지를 일깨워보겠다.

두괄식 지문	보통 지문의 문두에 주제문이 나오는 지문이다. 이 경우 도입 문장 또는 도입 단락이 주제문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개념을 설명하는 설명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며, 지문 독해 훈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더 쉽게 주제문을 놓치기 쉬운 지문이다.
미괄식 지문	논설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지문 구조이다. 논설문의 경우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논리 구조를 많이 사용하며 이 경우 주제문은 필연적으로 글의 말미에 위치하게 된다. 글의 논리 구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다가 글의 말미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주제문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
중괄식 지문	전형적인 {도입 → (주제 ← 근거)}의 형식을 띠는 단락이나 글의 경우 주제가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중괄식 지문의 형태를 갖는다. 중괄식 지문의 경우 주제문 찾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장들 간의 층위를 구분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괄식 지문 (수미쌍관형 지문)	양괄식 지문은 흔히 수미쌍관형 지문이라고 부른다. 평소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을 문두에 쓴 뒤 허전한 마음에 문미에 한 번 더 쓰는 습관이 있다면 바로 그런 글이 양괄식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제가 지문의 처음과 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주제문을 찾기 가장 쉬운 지문이라 할 수 있다.

04 | 주제문 찾기 실전 연습

※ [Q1~Q19] 다음 글들의 주제문을 찾아 밑줄을 긋고, 단락의 내용을 분석하시오.

Q1 생명체의 유전자는 비유컨대 건축물의 설계도이다. 건축물이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듯이 생명체도 유전자라는 설계도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설계도가 곧 건축물이 아니듯이, 유전자가 곧 생명체인 것은 아니다. 똑같은 설계도와 똑같은 사람에 의해 지어진 '쌍둥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똑같은 건축물은 아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지어질 때부터 공간성과 시간성이 각기 다른 것이다. 더욱이 지어진 뒤에 겪게 되는 쌍둥이 건축물의 역사와 그 의미는 결코 똑같지 않다. 능동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무생명체인 건축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또 영향을 받는 역사적 존재인 생물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매우 닮은 모습을 보이지만 각기 독립적이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

- 황상익, 「첨단의학시대에는 역사시계가 멈추는가」-

Q2 20세기에 이르러 시민권은 시민들이 시민적 시민권과 정치적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시민권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시민권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교육, 경제적 복지 등 '복지에 대한 권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노동 계급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때론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긴장이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마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적 시민권은 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질 자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양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과 소득 분배 정책은 강화되었으며, 또한 복지는 모든 성원들에게 '자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 조성남, 「에이지불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Q3 자연은 거의 모든 진동수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변환하는 전자기기는 필요한 범위의 진동수 소리만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전자기기로 변환된 음악은 생음악과는 다른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또 고막을 통하지 않고 몸을 통해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 몸은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 범위보다 더 넓은 영역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기기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음악연주회에 가서 몸 전체의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기영, 「자연과 물리학의 숨바꼭질」-

Q4 사실 우리 인간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기술을 당대의 도구와 보조물들의 형태에 긴밀히 조응시키는 데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나 보조물들이 거꾸로 조응하기 시작하면, 즉 우리의 기술이 적극적, 자동적,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맞추어 조정하기 시작하면 도구와 도구 사용자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그러한 기술이 도구를 넘어 인간정신의 일부처럼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나의 신경계 구조물(해마나 후두측벽피질 따위)을 나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흐릿한 의미, 궁극적으로는 역할적인 의미에서만 여전히 도구로 남는다. 물론 나는 나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뇌의 작동이 나 자신을 이루는 일부터. 감각을 지닌 쌍방향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세계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를 점점 더 잘 알아 갈수록 어디가 세계의 끝이고 어디에서 자아가 시작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진다.

- 앤디 클러크, 「우리는 선천적인 사이보그다」-

Q5 우리는 최근의 관찰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곧 우주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물질이나 복사가 아니라는 뜻이며, 따라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물질과 복사를 능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형태는 현재 ‘암흑에너지’라 불리고 있다. 암흑에너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이나 복사와는 달리 중력이 끌어당기지 않고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팽창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에서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갖는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이 스스로를 밀어내는 에너지 형태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 폴 슈타인하르트,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영원히 반복한다」—

Q6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Q7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고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Q8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Q9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소위 ‘근본주의 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경향의 미술가들은 회화 예술만의 특성, 즉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고 고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결국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 그것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중 매체라는 위압적인 경쟁자에 맞서 회화가 택한 절박한 시도였다. 그 결과 회화는 대중 매체와 구별되는 자신을 찾았지만, 남은 것은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뿐이었다.

Q10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Q11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재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Q12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을 통해 행위자들은 관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들을 자극하고 희롱한다. 공연은 정해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장면들을 보기도 한다. 이것들은 관객들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프닝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삶에 개입하는 의식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예술 시장에서 상징적 재화로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을 거부한다. 또 해프닝은 박물관에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되고 보존되는 기존 예술의 관습에도 저항한다.

Q13 킬트는 전통이 특정 시기에 정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근대 국가의 출현 이후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을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통은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신화화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Q14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한국의 국가적 입장에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고, 점차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현재는 상당히 증대하다고 평가할 만한 변화가 되었다. 즉,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류로 대표되는 영화, 음반이나 세계 최첨단의 온라인 게임물 등 각종 저작권 상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아울러 2001년에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였던 특허출원건수가 2005년도 세계 6위를 차지한 데 이어, 다시 2008년에는 세계 4위에 이르렀을 정도로 특허기술력 또한 단기간 내에 상당히 성장하였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노력에 있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논리에만 의지하여 가급적 방관 내지 회피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계속 보탬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한국은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하여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가령 한류의 핵심매체인 영화나 음반 등이나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최대한 충실히 권리 보호를 해줄 것을, 정부가 나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Q15 고대인들은 동굴의 벽에 들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놓곤 하였다. 사냥을 나가기 전이나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는 풍요로운 수확이나 일의 바른 처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술적 신앙은 아직 욕망의 단계인 가상을 생존의 공간인 현실의 세계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자연 현상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하나의 능동적 대응으로서, 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변형하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술은 소규모의 군집생활을 하던 고대인들에게 세계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었으며 생존의 원리였다.

Q16 소승불교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일상과 격리된 수도 생활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깨달음은 사적인 활동이 되고 그 내용상으로도 비사회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감안한다면 인간적 속성인 깨달음에도 역시 사회적 역할이 있음은 분명하다. 대승불교는 깨달음과 자유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소승불교의 한계를 지양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대승은 깨달음의 사회성과 실천성에 주목하였다.

Q17 태아의 뇌는 임신 4~6개월 사이에 주로 발달한다. 이 시기에 사고(지성의 뇌), 감정(정서의 뇌),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피질 부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하여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우리 신체 중 산소 공급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뇌다. 뇌가 활발하게 발육되는 이 시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받게 되면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받아 저능아, 지체지진아, 기형아 등이 태어날 수 있다.

Q18 그동안 한국의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어온 고용전략의 핵심은 기업 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전략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외주의 확대, 비정규 노동력의 활용 증대, 정규직의 축소 등 기업 내 고용형태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 증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계층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고용전략이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의 하나가 된 것이다.

Q19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말한다. 이 개념에는 이미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 나머지 세계를 대상화하여 지칭한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 중심주의란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게 하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의 문제는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다. 여기서 잘못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고,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견해를 말한다.

정답 & 해설

Q1	주제문 해설	설계도가 건축물이 아니듯, 유전자가 곧 생명체인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같다고 같은 생명체가 아님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Q2	주제문 해설	사회적 시민권의 배경, 정의 영향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3	주제문	전자기기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음악연주회에 가서 몸 전체의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Q4	주제문	도구와 도구 사용자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Q5	주제문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원인은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 때문이다.
Q6	주제문 해설	옵션의 양면성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7	주제문 해설	바로크 음악의 특성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8	주제문 해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비교 및 대조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9	주제문 해설	근본주의 회화의 전개와 특징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10	주제문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Q11	주제문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솔이 흔히 나타난다.
Q12	주제문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Q13	주제문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신화화하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Q14	주제문	오히려 한국은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하여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가령 한류의 핵심매체인 영화나 음반 등이나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최대한 충실히 권리 보호를 해줄 것을, 정부가 나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Q15	주제문 해설	따라서 주술은 소규모의 군집생활을 하던 고대인들에게 세계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었으며 생존의 원리였다. 전형적인 미발식 지문으로 비교적 주제문을 찾기 수월하다. 주제문을 찾는 중에 "그러므로"와 "따라서"를 발견하면 주로 주제문을 표시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Q16	주제문 해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비교 및 대조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문은 없으나 글 전체의 주제는 존재한다.
Q17	주제문 해설	태아는 태반을 통하여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우리 신체 중 산소 공급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뇌다. 대표적인 중괄식 지문으로 {도입 → (주제 ← 근거)}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
Q18	해설	첫 번째 문장의 기업 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마지막 문장의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주제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하여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제시문이다.
Q19	주제문	여기서 잘못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고,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견해를 말한다.



PSAT

단기완성을 위한
기초기술



자료해석

 에듀윌

01 | 자료해석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개념

01 비율 자료 실수하지 않기

자료해석에서 그림이나 표의 수치는 일반 숫자뿐 아니라, 비율 값도 빈번하게 제시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와 %p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는 퍼센트라고 읽으며,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학생 수가 100명이었고 2020년에는 학생 수가 110명이 되었다고 하면,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학생 수가 10%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는 퍼센트포인트라고 읽으며,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으로, 퍼센트 간의 차이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의 실업률이 26%였고, 2020년의 실업률이 28%라고 하면, 202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의 실업률만 제시되고 전체 구직자와 실업자의 수를 알지 못한다면, 전년도와의 증감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단순히 백분율만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지속적으로 증감하였다.'와 '증감 추세를 보인다.'의 차이이다.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되, 중간에 살짝 감소했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된다. 5급 공채나 5·7급 민경채의 기출문제에서는 추세보다는 지속적인 증감 여부를 확인하는 선지들이 더 자주 출제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체크해야 할 수식어로는 '항상', '모든', '매년' 등이 있다. 또한 추세를 확인 할 때에는 '오직', '~를 제외하고', '~만이' 등의 표현이 함께 제시될 수 있다.

변화폭과 변화량, 증감폭과 증감량, 증감률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변화폭과 변화량은 말 그대로 '변화'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증가와 감소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증감은 방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직원이 30명에서 35명이 되었다.'와 'B회사의 직원이 35명에서 30명이 되었다.'라는 서술은 A회사 직원의 증가폭은 5명이었고, B회사 직원의 감소폭은 5명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증가와 감소는 서로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변화폭과 변화량의 경우 특정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 직원의 변화폭은 5명이었다.', 'A회사와 B회사 직원의 변화량은 5명이었다.'와 같이 A회사와 B회사를 하나의 서술로 묶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02 분수의 크기 비교

문제에서 분수끼리의 비교를 묻는 경우가 제시될 수 있다. 분자와 분모가 한 자리 숫자 또는 두 자리 숫자일 경우 직접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만, 세 자리가 넘어가는 숫자의 경우 복잡한 계산식에서는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분수 비교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분수의 분자와 분모의 크기이다. 두 분수의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가 큰 분수, 분자가 같을 때에는 분모가 작은 분수가 더 크다. 예를 들어, $\frac{14,206,451}{22,112}$ 과 $\frac{14,201,261}{22,112}$ 은 분모가 같고 첫 번째 분수의 분자가 두 번째 분수의 분자보다 크므로,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큰 수이다. 이와 달리 $\frac{15,284,261}{21,064}$ 과 $\frac{15,284,261}{23,512}$ 은 분자가 같고 첫 번째 수의 분모가 두 번째 수의 분모보다 작으므로,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큰 수이다.

다음으로 두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함께 커지는 형태가 주어질 때,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다. $\frac{a}{b}$, $\frac{c}{d}$ 라는 분수가 주어져 있을 때, a에서 c로 갈 때의 증가

을, b에서 d로 갈 때의 증가율을 비교한다. 만약 a → c로 갈 때의 증가율이 b → d로 갈 때의 증가율보다 크다면, 전체적으로 분자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frac{c}{d}$ 가 더 큰 분수가 된다. 그러나 a → c로 갈 때의 증가율이 b → d로 갈 때의 증가율보다 작다면, 전체적으로 분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frac{a}{b}$ 가 더 큰 분수가 된다.

자연로그(ln)를 활용하여 분수 값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ln \frac{a}{b} = \ln a - \ln b$ 로 표시할 수 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분수로 나타내는 수치의 값과 분수의 분모 값 또는 분자 값 중 하나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은 분모 값 또는 분자 값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 $\frac{\text{특정 회사의 월 매출액}}{\text{전체 회사의 월 매출총액}}$ 이라고 할 때, 양변에 자연로그(ln)를 취하면 $\ln(\text{시장 점유율}) = \frac{\ln(\text{특정 회사의 월 매출액})}{\ln(\text{전체 회사의 월 매출총액})}$ 이 되고, 이는 $\ln(\text{시장 점유율}) = \ln(\text{특정 회사의 월 매출액}) - \ln(\text{전체 회사의 월 매출총액})$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시장 점유율'과 '전체 회사의 월 매출총액'을 알고 있다면 '특정 회사의 월 매출액'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

03 곱셈끼리의 비교

자료해석에서는 두 수의 곱셈끼리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이때 곱해야 하는 수가 간단한 한두 자리 수라면 직접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만, 비율 자료에서는 소수가 주어지고, 세 자리 이상의 큰 숫자가 제시되는 자료도 많다. 따라서 먼저 수를 확인해 본다. 예를 들어, 194×15와 187×12의 대소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 194가 187보다 크고, 15가 12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전자가 더 큰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수가 항상 이렇게 큰 수끼리, 작은 수끼리 제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큰 수와 작은 수의 곱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73×652와 1,759×483이라는 수의 곱을 비교해야 한다면 1,573은 1,759보다 작지만, 652는 483보다 크기 때문에 앞서 했던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배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73의 10%는 157.3이므로, 1,759는 1,573의 약 1.1배라고 어렵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한편, 652와 483을 비교하면 652는 483의 1.1배보다 더 큰 수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652는 483의 약 1.3배 정도이다. 따라서 1,573×652와 1,759×483 중에서는 전자의 배율이 더 크므로, 전자가 더 큰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04 확률과 조건부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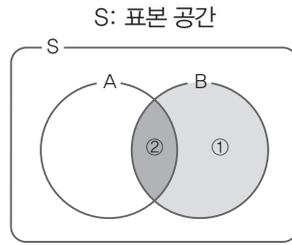
확률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는 $\frac{\text{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text{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3이 나올 확률은 $\frac{1}{6}$ 인 것이다.

조건부확률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는데, 그 홀수가 6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frac{\text{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text{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text{이다. '전체 경우의 수'라는 분모가 약분되므로}$$

$$\frac{\text{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text{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text{가 되고, 이를 기호로 표현하면 } P(A|B) = \frac{\frac{n(A \cap B)}{n(U)}}{\frac{n(B)}{n(U)}} = \frac{n(A \cap B)}{n(B)} \text{이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①은 $n(B) - n(A \cap B)$ 에 해당하고, ②는 $n(A \cap B)$ 에 해당한다.



공식에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왔는데, 그 수가 6의 약수인 상황’을 대입해 보자.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올 사건’이 B에 해당하고,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이 A에 해당한다고 하면, $P(\text{홀수 눈이 나오} | \text{6의 약수가 나오})$ 이 된다.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올 확률은 $\frac{3}{6}$ 이고, 주사위를 던져 홀수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frac{2}{6}$ 이므로, $\frac{\frac{2}{6}}{\frac{3}{6}} = \frac{2}{3}$ 로 구할 수 있다.

05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은 두 집합 사이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한다고 응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를 좋아한다고 응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과와 포도 둘 다 좋아한다고 응답할 수도 있다. 이때 사과와 포도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을 교집합이라 칭하고, 각각의 집합을 A와 B라고 했을 때 $A \cap B$ 로 표시한다. 계산에서 교집합을 따질 때에는, 주로 최소 교집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최소 교집합을 이해하려면 합집합의 개념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집합 A와 B가 있다고 하자. 이때 집합 A와 B의 합집합은 기호로 $n(A \cup B)$ 라고 표현하며, 여기에는 A만 선택한 경우, B만 선택한 경우, A와 B를 모두 선택한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n(U) \geq n(A \cup B)$ 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때 $n(A \cup B)$ 는 A를 선택한 $n(A)$ 와 B를 선택한 $n(B)$ 를 더한 뒤, A와 B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를 한 번 빼주어야 한다. 즉, $n(A \cup B) = n(A) + n(B) - n(A \cap B)$ 라는 식이 세워진다.

$n(A \cup B) = n(A) + n(B) - n(A \cap B)$ 를, $n(U) \geq n(A \cup B)$ 에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러면 $n(U) \geq n(A) + n(B) - n(A \cap B)$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n(A \cap B) \geq n(A) + n(B) - n(U)$ 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즉,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는 $n(A) + n(B) - n(U)$ 를 갖는다.

06 산술평균, 중앙값, 가평균, 가중평균

자료해석에서 이용하는 평균은 크게 산술평균, 가평균, 가중평균으로 나뉘질 수 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산술평균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술평균은 흔히 떠올리는 평균 계산법으로, 변수들의 총합을 변수의 개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평균을 m , 변수의 총 개수를 n 이라고 했을 때,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m = \frac{\sum_{i=1}^n x_i}{n}$ 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 점

수 8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70점의 산술평균은 $\frac{80+90+70}{3} = 80(\text{점})$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 소수의 극단치가 전체의 평균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시와 같이 70, 80, 90의 평균을 구하라고 할 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만일 10, 20, 300처럼 어느 한 수가 극단적으로 큰 경우가 있을 때의 산술

평균값을 구하면 $\frac{10+20+300}{3} = 110$ 이나, 해당 산술평균값이 주어진 수치들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에는 산술평균보다 중앙값을 이용하기도 한다.

중앙값은 주어진 수치를 값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한다. 10, 20, 300의 경우 가운데에 위치한 20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다. 주어진 수치가 홀수 개라면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수치를 고르면 되고, 주어진 수치가 짝수 개라면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 즉, n개의 숫자가 있다고 할 때, n이 홀수라면 $\frac{n+1}{2}$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고, n이 짝수라면 $\frac{n}{2}$ 과 $\frac{n}{2}+1$ 번째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다.

가평균은 가짜 평균을 미리 구해 놓고, 각각의 수치들이 그 가짜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산술평균대로 계산했을 때 수가 너무 커지게 되는 경우 계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가평균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수치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가평균으로 설정한다. 이때 다른 수치에서 가평균까지의 차를 과부족이라고 부르는데, 가평균에 과부족의 평균을 더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즉, 평균을 m으로, 가평균을 A

라고 하고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m=A+\frac{\sum_{i=1}^n(x_i-A)}{n}$ 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4년 동안 인구 밀도가 주어졌고, 그 수치가 283.2, 290.5, 300.0, 316.4(명/km²)라고 하자. 이 값을 모두 더한 뒤 4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산하기에 깔끔한 숫자는 아니므로 임의로 가평균 A=300.0이라고 설정한다. 이때 각 수치와 가평균의 편차, 즉 과부족은 -16.8, -9.5, 0, 16.4이므로 과부족의 평균은 $\frac{-16.8-9.5+0+16.4}{4}=\frac{-9.9}{4}=-2.475$ 가 된다. 즉, 주어진 수치의 평균은 가평균에서 과부족의 평균을 더한 값이므로, $300-2.475=297.525$ (명/km²)이다.

가중평균은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주어진 평균을 가지고 어느 쪽에 가중치가 더 크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중평균을 m이라고 하고, 주어진 값들을 각각 x_1, x_2, \dots, x_n , 값들에 부여된 가중치를 각각 f_1, f_2, \dots, f_n , 가중치의 총합 $f_1+f_2+\dots+f_n=N$ 이라고

했을 때, 가중평균은 $m=\frac{\sum_{i=1}^n(x_i \times f_i)}{N}$ 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국어 80점, 영어 90점, 수학 70점을 받았는데, 이때 수업시수는 국어의 경우 3, 영어의 경우 2, 수학의 경우 6이라고 하자.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이 점수를 계산했을 때에는 $\frac{80+90+70}{3}=80$ (점)이지만, 수업시수라는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면 $\frac{(80 \times 3)+(90 \times 2)+(70 \times 6)}{3+2+6}$

$=\frac{840}{11} \approx 76.36$ (점)이 되어 산술평균보다 작아진다. 이때 더 큰 가중평균이 적용된 수학 점수에 가중평균이 좀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가 세 개의 항목이 아닌 두 개의 항목일 경우를 확인해 보자. 어떤 학생의 사회 점수가 70점, 과학 점수가 80점이고, 가중평균을 적용했을 때의 평균이 73점이라고 하자. 이때 가장 먼저 가중평균이 80보다 70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중평균이 각각 얼마의 비율로 적용되었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점수와 가중평균을 수직선 위에 표시하고, 점수부터 가중평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가중치 간의 비는 가중평균과의 거리의 비와 반비례한다. 즉, 사회:과학의 가중평균 거리가 3:7이므로, 실제 사회:과학의 가중치의 비는 7:3이 된다.

02 | 기본개념 적용 연습

※ [Q1 ~ Q2] 다음 자료를 읽고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민의 통행특성 조사 결과

구분 연도 지역	일일 평균 통행시간(분)		일일 평균 통행거리(km)		일일 평균 통행횟수(회)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서울특별시	83.41	83.48	21.13	20.40	2.64	2.59
인천광역시	75.79	75.65	19.41	19.16	2.62	2.60
경기도	76.29	78.52	22.45	24.54	2.57	2.58
수도권 전체	79.23	80.44	21.49	22.13	2.61	2.59

Q1 2010년 서울특별시의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는 경기도의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보다 크다. (O / X)

Q2 2005년 인천광역시의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는 경기도의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보다 작다. (O / X)

※ [Q3~Q5] 다음 자료를 읽고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시오. (단, 설문조사 인원 수는 1,000명이다.)

〈표 1〉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성별 비율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30.0	37.5	33.0

※ 설문조사 대상자 중 미응답자는 없음

〈표 2〉 희망 성형수술 유형별 비율

(단위: %)

성형수술 유형	성별	
	남성	여성
코 성형	40	44
눈 성형	50	62
치아교정	25	30
피부 레이저 시술	25	30
지방흡입	15	22
기타	5	10

※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 성형수술 유형에 대해 응답하였음(복수응답 가능)

Q3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많다. (O / X)

Q4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남성이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보다 많다. (O / X)

Q5 코 성형과 눈 성형 둘 다 희망하는 여성은 10명 이상이다. (O / X)

※ [Q6~Q8] 다음 자료를 읽고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표 1〉 학교급별 평균 키 및 평균 체중 현황

(단위: cm, kg)

구분	성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키	체중								
초등학교	남	152.1	48.2	151.4	46.8	151.4	46.8	150.4	46.0	150.0	44.7
	여	152.3	45.5	151.9	45.2	151.8	45.1	151.1	44.4	151.0	43.7
중학교	남	170.0	63.7	169.7	62.3	169.2	61.9	168.9	61.6	168.7	60.5
	여	159.8	54.4	159.8	54.3	159.8	54.1	159.5	53.6	160.0	52.9
고등학교	남	173.5	70.0	173.5	69.4	173.5	68.5	173.7	68.3	174.0	68.2
	여	160.9	57.2	160.9	57.1	160.9	56.8	161.1	56.2	161.1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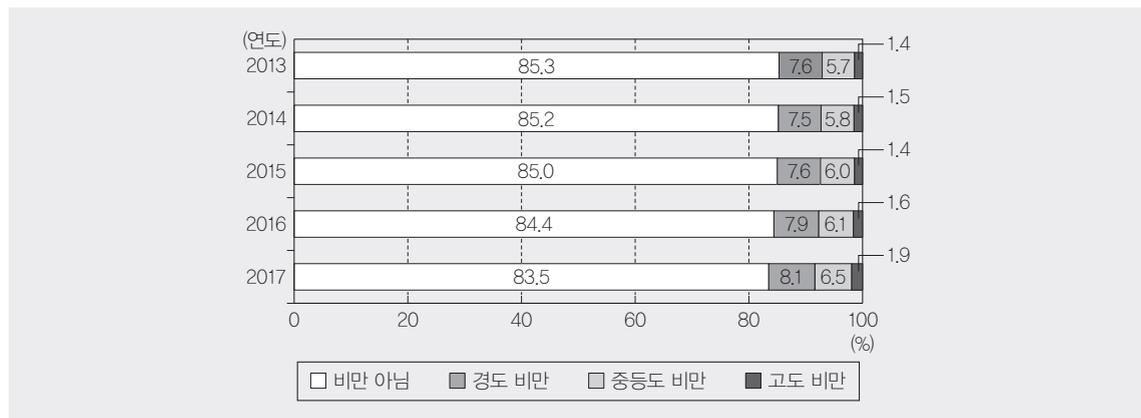
〈표 2〉 2017년 학교급별 비만학생 구성비

(단위: %)

구분	성별	비만 아닌 학생	비만학생			학생 비만율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	
초등학교	남	82.6	8.5	7.3	1.6	17.4
	여	88.3	6.5	4.4	0.8	11.7
중학교	남	81.5	9.0	7.5	2.0	18.5
	여	86.2	7.5	4.9	1.4	13.8
고등학교	남	79.5	8.7	8.4	3.4	20.5
	여	81.2	8.6	7.5	2.7	18.8
전체		83.5	8.1	6.5	1.9	16.5

※ 학생비만율은 학생 중 비만학생(경도 비만+중등도 비만+고도 비만)의 구성비임

〈그림〉 2013~2017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비만학생 구성비



Q6 2013~2017년 초등학교 남아와 여아의 평균 키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O / X)

Q7 2016년에 비해 2017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비만학생은 0.9% 증가하였다. (O / X)

Q8 2017년 학생비만율의 남녀 간 학생 수의 차이는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난다. (O / X)

정답 & 해설

Q1	(X) 분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는 $\frac{\text{일일 평균 통행거리}}{\text{일일 평균 통행시간}}$ 로 구할 수 있다. 2010년 서울특별시 의 경우 $\frac{20.40}{83.48}$, 경기도의 경우 $\frac{24.54}{78.52}$ 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보다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므로, 분수를 소수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가 서울특별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2	(O) 분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일 평균 통행시간 대비 일일 평균 통행거리는 $\frac{\text{일일 평균 통행거리}}{\text{일일 평균 통행시간}}$ 로 구할 수 있다. 2005년 인천광역시 의 경우 $\frac{19.41}{75.79}$, 경기도의 경우 $\frac{22.45}{76.29}$ 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분모와 분자가 모두 증가하므로,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구한 뒤 비교한다. 경기도는 인천광역시보다 분모가 $\frac{76.29-75.79}{75.79} \times 100 = \frac{0.5}{75.79} \times 100 \approx 0.66\%$ 증가하였고, 분자는 $\frac{22.45-19.41}{19.41} \times 100 = \frac{3.04}{19.41} \times 100 \approx 15.66\%$ 증가하였다. 따라서 분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보다 경기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3	(X) 이는 가중평균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성형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는 33.0%로, 남성은 30.0%, 여성은 37.5%로 제시되었다. 전체와 남성의 거리비는 3, 전체와 여성의 거리비는 4.5에 해당한다. 남성:여성은 3:4.5의 거리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여성은 4.5:3의 가중치를 갖는다. 즉,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성 응답자는 전체의 $\frac{4.5}{4.5+3} = \frac{4.5}{7.5} = \frac{3}{5}$,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frac{3}{4.5+3} = \frac{3}{7.5} = \frac{2}{5}$ 이므로 설문조사는 남성 600명과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4	(O)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구성비를 구했다면, <표 1>에서 성형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대상자 수에 곱해,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 600명 중 30%인 180명, 여성 400명 중 37.5%인 150명이 성형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설문조사에서 성형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Q5	(X)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전체 1,000명 중 여성이 400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성형 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는 $400(\text{명}) \times 37.5\% = 150(\text{명})$ 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집합의 범위를 확인하여 코 성형과 눈 성형 둘 다 희망하는 여성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표 2>에서 코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44%, 눈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62%였다. 두 비율을 합했을 때 106%로 100%를 초과한다. 따라서 코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과 눈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소치는 $44+62-100=6\%$ 가 될 것이고,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는 두 집합 중 작은 쪽의 수치인 44%가 될 것이다. 즉, 성형 수술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여성(150명) 중 최소 6%(9명), 최대 44%(66명)가 코 성형과 눈 성형 둘 다 희망하므로, 9명 이상의 여성이 코 성형과 눈 성형 둘 다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6	(O) '추세'라는 말이 있으므로 소폭 감소하거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구간이 있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초등학교 여아의 평균 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남아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의 키가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7	(X) %와 %p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비만 아닌 학생의 비율은 2016년의 경우 84.4%, 2017년의 경우 83.5%이므로 비만인 학생은 0.9%p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2016년과 2017년 조사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의 숫자가 모두 동일하지 여부는 주어진 자료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백분율의 변화만을 확인할 수 있다.
Q8	(X) 비율 자료와 수치 자료를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표 2>에서 초등학교 남아 학생비만율은 17.4%, 여아 학생비만율은 11.7%이고, 고등학교 남자 학생비만율은 20.5%, 여자 학생비만율은 18.8%이다.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의 성별 간 학생비만율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 2>에서는 학교급별 남녀 학생의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만에 속하는 남녀 학생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3 | 예시문항 분석(2019.12.10.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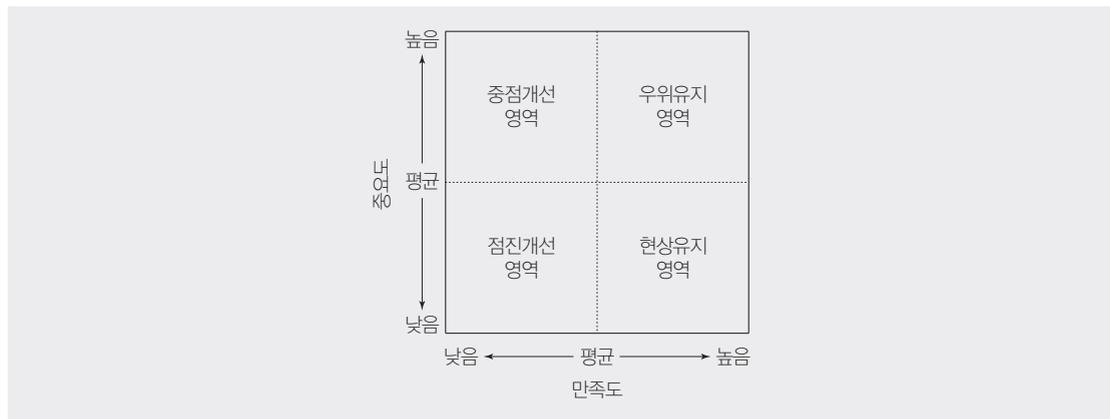
Q1. 다음 <표>는 ‘갑’ 박물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12개 평가항목에 대해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그림>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평가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평가항목	구분	중요도	만족도
홈페이지		4.45	4.51
안내 직원		()	4.23
안내 자료		4.39	4.13
안내 시설물		4.32	4.42
전시공간 규모		4.33	4.19
전시공간 환경		4.46	4.38
전시물 수		4.68	4.74
전시물 다양성		4.59	4.43
전시물 설명문		4.34	4.44
기획 프로그램		4.12	4.41
휴게 시설		4.18	4.39
교통 및 주차		4.29	4.17
평균		4.35	4.37

<그림>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평가항목 영역 분류



- ①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 ② ‘교통 및 주차’는 ‘현상유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 ③ ‘점진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2개이다.
- ④ ‘우위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수는 ‘현상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수와 같다.
- ⑤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은 없다.

|출제 경향|

'자료 읽기'에 해당하는 문제로, <표>의 빈칸을 채우고 <표>로 제시된 자료가 <그림>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해결하기 쉬운 선지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선지는 그 다음에 확인하도록 한다. 해결하기 쉬운 선지만 계산량이 적거나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선지를 말한다.

|난이도| 하

|정답| ④

|선지 분석|

- ①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 (X) 해당 선지는 계산량이 많은 편이므로, 기급적이면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중요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중요도의 평균을 더하고 나누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석적인 평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초과인 것과 평균 미만인 것을 확인하여 '안내 직원'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한다. 문제에서 평균을 포함한 모든 중요도의 정수 부분은 40이므로, 4를 생략하고 소수점만 고려하기로 한다. 평균은 0.35이므로 평균보다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들과 평균보다 큰 것들을 파악한 뒤, 평균보다 큰 것들을 평균보다 낮은 것에 나눠줌으로써 평균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것은 0.35보다 크게 되므로, 평균을 맞추기 위하여 '안내 직원'은 평균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 ② '교통 및 주차'는 '현상유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 (X)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선지이다. '교통 및 주차'의 중요도는 4.29이므로 평균인 4.35보다 낮고, 만족도도 4.17로 평균인 4.37보다 낮다. 따라서 '교통 및 주차'는 '현상 유지 영역'이 아니라, '점진개선 영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③ '점진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2개이다. ➡ (X) '점진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 미만인 것을 확인하면 된다. 이때 중요도 또는 만족도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평균 미만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것 역시 평균 미만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중요도를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평균 미만의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안내 직원, 안내 시설물, 전시공간 규모, 전시물 설명문, 기획 프로그램, 휴게 시설, 교통 및 주차'의 7개 항목이다. 이때 평균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안내 직원, 전시공간 규모, 교통 및 주차'의 3개 항목이다. 즉, '점진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3개이다.
- ④ '우위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수는 '현상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수와 같다. ➡ (O) '우위유지 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항목을 말하고, '현상유지 영역'은 만족도는 평균보다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보다 낮은 항목을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은 항목부터 확인한 뒤, 그 항목들의 중요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홈페이지, 안내 시설물, 전시공간 환경, 전시물 수, 전시물 다양성, 전시물 설명문, 기획 프로그램, 휴게 시설'의 8개이다. 이 중 중요도도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홈페이지, 전시공간 환경, 전시물 수, 전시물 다양성'으로 4개이고, 중요도가 평균보다 낮은 항목은 '안내 시설물, 전시물 설명문, 기획 프로그램, 휴게 시설'로 4개이다. 따라서 '우위유지 영역'과 '현상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수는 각각 4개이다.
- ⑤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은 없다. ➡ (X)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중요도는 평균보다 높고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항목을 말한다. ③에서 평균 미만의 중요도인 항목들을 확인하였으므로, 평균 초과인 중요도를 보이는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안내 자료, 전시공간 환경, 전시물 수, 전시물 다양성'으로 5개 항목이다. 이 중 평균 미만의 만족도를 갖는 항목은 '안내 자료'이다. 따라서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안내 자료'가 있다.

Q2.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자료



보다 나은 정부

보고일시	브리핑(14시) 이후		
배포일시	2019. □□. □□	담당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담당과장	김◇◇(044-000-0001)	담당자	박△△(044-000-0009)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80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9년 8월 23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전면 시행 1개월을 앞두고 지난 7월 대형마트 100곳, 중소형마트 100곳에 유통 중인 달걀 전체를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체
표시율(%)	90	70	85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후 생산된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예시

0823M3FDS2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사육환경번호	사육환경	내용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 케이지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마리 이상
4	기존 케이지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5㎡/마리 이상

보기

ㄱ.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의 계도기간은 2019년 2월에 시작되었다.

ㄴ. ‘1023M3FDS3’으로 표시된 달걀이 150m² 면적의 케이지에서 산란되었다면, 10월 23일 기준 해당 케이지의 닭은 2,000마리 이하이다.

ㄷ. 2019년 7월 산란일자 표시여부 조사 대상 달걀 수는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의 4배 미만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출제 경향|

'자료 읽기'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뒤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5급 공채 시험에서는 <보도자료>를 제시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실제 7급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문과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보도자료>의 출제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 자료 읽기 및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지의 정오를 먼저 판별한다. 이때 가중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 선지를 해결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난이도| 중

|정답| ⑤

|선지 분석|

ㄱ.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의 계도기간은 2019년 2월에 시작되었다. → (○) <보도자료>의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을 보면 180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9년 8월 23일 전면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즉, 계도기간이 시작된 것은 2019년 8월 23일로부터 180일 전이며, 180일은 약 6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9년 2월에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ㄴ. '1023M3FDS3'으로 표시된 달걀이 150m² 면적의 케이지에서 산란되었다면, 10월 23일 기준 해당 케이지의 닭은 2,000마리 이하이다. →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의 1~4번째 자리의 숫자는 산란일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1023M3FDS3의 1023은 10월 23일을 의미한다. 5~9번째 자리의 문자열은 생산자고유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M3FDS'는 생산자고유번호를 의미하고, 마지막 10번째 자리의 숫자는 사육환경번호를 의미한다. <보도자료>의 두 번째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보면, 사육환경번호가 3일 경우,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m²마리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0.075m²에 한 마리 이하의 닭이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150m² 면적의 케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닭의 수는 0.075(m²):1(마리)=150(m²):n(마리)의 비례식을 풀어 계산할 수 있다. 150(m²/마리)=0.075(m²)×n(마리)을 계산하면 $n = \frac{150}{0.075} = 2,000$ 이므로, n은 최대 2,000마리가 될 수 있다.

ㄷ. 2019년 7월 산란일자 표시여부 조사 대상 달걀 수는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의 4배 미만이다. → (○) <보도자료>의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100곳과 중소형마트 100곳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였다. 대형마트의 달걀 개수를 x, 중소형마트의 달걀 개수를 y,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의 달걀 개수의 합을 z라고 하자.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은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달걀의 90%, 중소형마트에 유통되는 달걀의 70%로, 전체 달걀의 85%라고 한다. 즉, 이를 연립하는 방정식으로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begin{cases} x+y=z \\ 0.9x+0.7y=0.85z \end{cases}$$

미지수는 3개이지만 방정식은 2개라서 정확한 x, y, z 값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해당 선지에서 유통되는 달걀의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비례식만 계산하면 된다. 첫 번째 식에 70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 100을 곱하여 $\begin{cases} 70x+70y=70z \\ 90x+70y=85z \end{cases}$ 라는 식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연립하면,

$$20x=15z \text{이므로, } x = \frac{15}{20}z = \frac{3}{4}z \text{이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에 90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 100을 곱하여 } \begin{cases} 90x+90y=90z \\ 90x+70y=85z \end{cases} \text{ 라는 식을 구한 뒤 연립}$$

하여, $20y=5z$ 를 구할 수 있으므로, $y = \frac{5}{20}z = \frac{1}{4}z$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어도 대형마트에 유통되어 산란일자 표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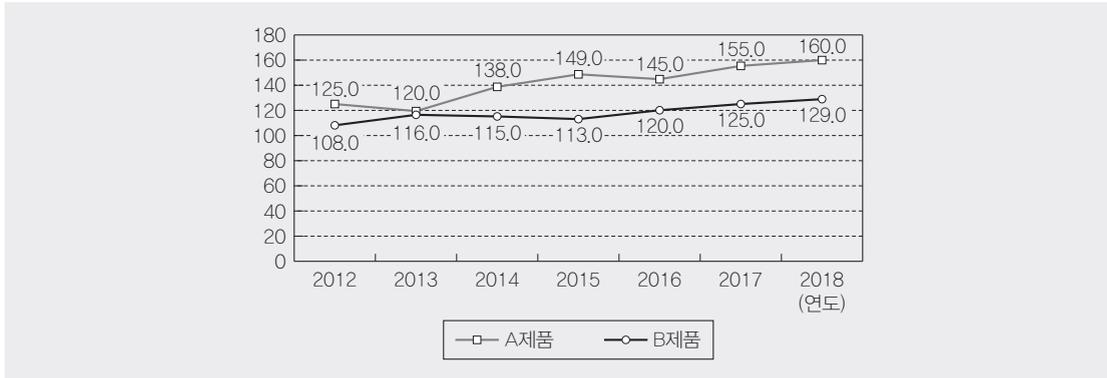
조사 대상이 되었던 달걀은 전체의 $\frac{3}{4}$, 중소형마트의 경우 전체의 $\frac{1}{4}$ 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의 3배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4배 미만

풀이 TIP

가중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풀이 시간이 줄어든다. 대형마트의 표시율이 90%, 중소형 마트의 표시율이 70%일 때,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전체의 평균이 85%라고 하였으므로 일단 중소형마트보다 대형마트에 가중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에서 85까지의 거리는 15, 90에서 85까지의 거리는 5이므로, 중소형마트와 평균, 대형마트와 평균의 거리비는 15:5, 즉 3:1이 된다. 이는 중소형마트의 가중치가 1일 때, 대형마트는 3의 가중치를 갖는다는 의미이므로 대형마트의 조사 대상 달걀의 수가 중소형마트의 조사 대상 달걀의 수의 3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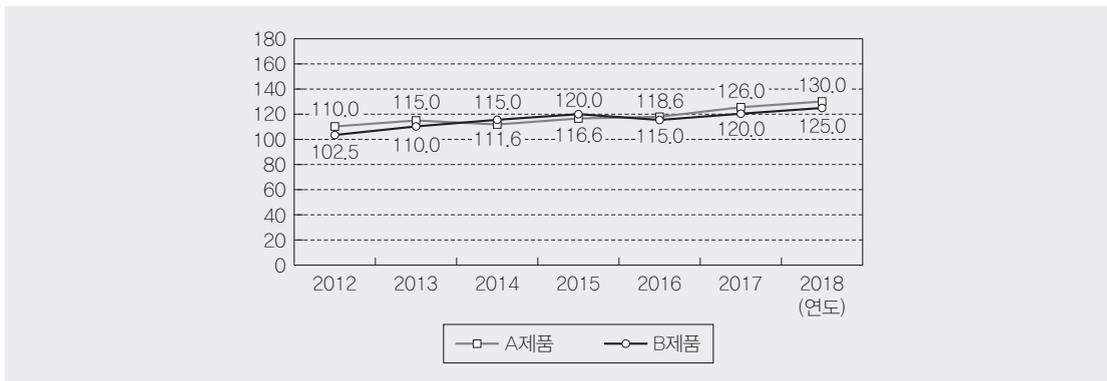
Q3. 다음 <그림>은 2012~2018년 동안 A제품과 B제품의 판매수량 및 평균 판매단가를 지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1> A제품과 B제품의 판매수량 지수



※ 판매수량 지수는 2011년의 판매수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연도 판매수량의 상대적 비율임

<그림 2> A제품과 B제품의 평균 판매단가 지수



※ 1) 평균 판매단가 지수는 2011년의 평균 판매단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연도 평균 판매단가의 상대적 비율임

- 2) 2011년 A제품의 평균 판매단가는 B제품과 동일함
- 3) 매출액 = 평균 판매단가 × 판매수량

- ① A제품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 ② 2012년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 비율
- ③ B제품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증가율
- ④ 2018년 B제품 평균 판매단가 대비 A제품 평균 판매단가 비율
- ⑤ B제품 판매수량의 연평균 증가율

|출제 경향|

'자료 읽기'에 해당하는 문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림>을 통해 선지에서 제시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각 선지에서 묻고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계산하려 하지 말고, 선지에서 묻고 있는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정보를 주어진 <자료>에서 총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난이도| 중

|정답| ②

|선지 분석|

① A제품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Rightarrow (O) 매출액은 <그림 2>의 각주 3)에 의해 $(n년 판매수량 지수 \times 2011년 판매수량) \times (n년 판매단가 지수 \times 2011년 판매단가)$ 로 구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판매수량을, <그림 2>에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연도의 A제품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이전 연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frac{(n+1)년-n년}{n년}$ 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구할 수 있다. 즉, 연평균 증가율에 각각 2011~2018년 A제품의 매출액을 대입하면 A제품의 2011~2018년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풀이 TIP

<그림 1>에서 정확한 '판매수량'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판매수량 지수'를 알려준 것인데, 어떻게 판매수량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각주에서 판매수량 지수는 2011년의 판매수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해당 연도의 판매수량의 상대적 비율이라고 하였으므로, 매출액의 증감 추세를 확인하는 데에는 판매수량 지수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2>의 평균 판매단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② 2012년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 비율 \Rightarrow (X) 2012년의 매출액은 <그림 2>의 각주 3)에 의해 $(2012년 판매수량 지수 \times 2011년 판매수량) \times (2012년 판매단가 지수 \times 2011년 판매단가)$ 로 구할 수 있다. 2012년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2년 B제품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의 평균 판매단가 지수는 2011년의 A, B제품 각각의 평균 판매단가 지수를 100으로 상정하고 주어졌다. 그러나 각주 2)에서 2011년 A제품과 B제품의 판매단가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 1>에서 주어진 A, B제품의 판매수량 지수는 2011년 A, B제품의 판매수량을 각각 100으로 했을 때를 상정하고 주어진 것으로, 실제로 A와 B제품의 2011년 판매수량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1년 A제품과 B제품이 각각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③ B제품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증가율 \Rightarrow (O) B제품 평균 판매단가 지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고, 이는 모두 2011년 B제품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균 판매단가' 대신 '평균 판매단가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frac{(n년 판매단가 지수) - (n-1년 판매단가 지수)}{n-1년 판매단가 지수}$ 를 계산하여, B제품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018년 B제품 평균 판매단가 대비 A제품 평균 판매단가 비율 \Rightarrow (O) <그림 2>의 각주 2)에서 2011년 A제품의 평균 판매단가가 B제품의 평균 판매단가와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frac{A제품 판매단가}{B제품 판매단가}$ 를 통해 B제품 대비 A제품의 평균 판매단가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2011년의 A, B제품의 정확한 판매단가는 알 수 없지만 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

⑤ B제품 판매수량의 연평균 증가율 \Rightarrow (O) 이전 연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frac{(n+1)년-n년}{n년}$ 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구한다. <그림 1>에서 B제품 판매수량의 판매수량 지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frac{(n+1년 판매수량 \times 2011년 판매수량) - (n년 판매수량 \times 2011년 판매수량)}{n년 판매수량 \times 2011년 판매수량}$ 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에 각각 2011~2018년 B제품의 판매수량 지수를 대입하면 B제품의 2011~2018년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Q4. 다음 <표>는 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개별지표와 종합지수이다. <표>의 종합지수를 아래의 <대화>에 근거하여 재작성할 경우, '환산된 2014년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A)와 '2015년 기존의 종합지수 대비 재작성된 종합지수의 변화'(B)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영역별 지수 및 종합지수

영역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소비	100.0	99.4	103.9	109.0	109.6	108.7	111.9	113.4	114.4	116.5
고용·임금	100.0	102.1	103.0	100.3	99.8	101.8	103.6	105.2	103.6	103.2
사회복지	100.0	101.3	103.2	108.4	107.8	107.8	110.0	112.8	115.4	116.3
주거	100.0	100.3	100.5	101.3	102.0	101.9	102.1	103.6	105.2	105.2
건강	100.0	112.7	114.2	110.6	107.1	108.5	105.6	105.7	108.9	107.2
교육	100.0	104.5	107.7	114.3	116.7	119.7	124.4	119.7	122.5	123.9
문화·여가	100.0	99.9	98.9	98.9	99.5	95.4	104.4	111.0	111.4	112.7
가족·공동체	100.0	98.3	98.2	94.9	95.6	96.6	98.5	98.5	98.2	98.6
시민참여	100.0	103.1	111.5	116.1	114.8	114.1	116.9	116.3	113.4	111.1
안전	100.0	96.9	97.5	101.3	108.9	113.2	114.5	116.3	121.4	122.2
환경	100.0	102.7	109.5	103.9	103.8	105.3	109.4	107.1	108.5	111.9
종합	100.0	101.9	104.4	105.4	106.0	106.6	109.2	110.0	111.2	111.7

대화

사무관: 2013년부터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이 처음으로 측정되어 이 영역이 추가됩니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은 정리되었나요?

주무관: 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개별지표	연도		
		2013	2014	2015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5.0	5.0	5.7
	긍정정서	6.0	5.7	6.6

사무관: '주관적 웰빙' 영역까지 포함한 종합지수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역지수는 기준 연도(2006년) 대비 당해 연도 영역별 '개별지표 비율'의 산술평균임(단, '주관적 웰빙' 영역의 기준 연도는 2013년임)
- 개별지표 비율 = $\frac{\text{당해 연도 지표값}}{\text{기준 연도 지표값}} \times 100$
- 종합지수는 모든 영역지수의 산술평균임

주무관: 영역지수에 '주관적 웰빙' 영역을 추가하고, 종합지수를 재작성하겠습니다.

사무관: 아! 그런데, 2013년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는 2013년 기존 종합지수값인 110.0을 사용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를 환산해주세요.

※ 지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
|---------|----|
| A | B |
| ① 97.5 | 감소 |
| ② 97.5 | 증가 |
| ③ 107.3 | 감소 |
| ④ 107.3 | 증가 |
| ⑤ 107.3 | 없음 |

|출제 경향|

'자료 추론(계산형)'에 해당하는 문제로, <대화>에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여 특정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제시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의 어느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이도| 중

|정답| ④

|선지 분석|

- (A) 환산된 2014년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 → <대화>에서 사무관은 2013년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는 2013년 기준 종합지수값인 110.0을 사용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를 환산해달라고 하였다. 즉, 2014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는 2013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의 개별지표값과 종합지수값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frac{5.0}{5.0} \times 110.0 = 110.0$, 긍정정서의 경우 $\frac{5.7}{6.0} \times 110 = 104.5$ 로 구할 수 있다. 이때 <대화>에서 사무관은 종합지수는 모든 영역지수의 산술평균이라고 하였으므로,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정서의 값의 평균임을 알 수 있다. 즉, 2014년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의 값은 $\frac{110+104.5}{2} = 107.25 \approx 107.3$ 으로 구할 수 있다.
- (B) 2015년 기준의 종합지수 대비 재작성된 종합지수의 변화 → 2015년 기준의 종합지수는 <표>의 마지막 행에 111.7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주관적 웰빙' 영역이라는 개별지수를 포함하였을 때 종합지수가 111.7보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2015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를 구해야 한다. 2015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frac{5.7}{5.0} \times 110.0 = 125.4$, 긍정정서는 $\frac{6.6}{6} \times 110.0 = 121$ 이다. 이 둘의 산술평균을 구하면 $\frac{125.4+121}{2} = 123.2$ 이다. 즉,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123.2가 기존의 종합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2015년 '주관적 웰빙' 영역을 포함하여 재작성된 종합지수가 기존보다 증가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풀이 TIP

2015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지수를 평균으로 구하지 않아도 2015년의 종합지수인 111.7보다 2015년 삶에 대한 만족도(125.4)와 긍정정서(121)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수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내면 111.7보다 클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PSAT

단기완성을 위한
기초기술



상황판단

 에듀윌

01 | 상황판단의 모든 것

01 상황판단의 정의

PSAT는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준말로 공직자로서의 소질, 적성, 재능, 수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식정부 제1항 공직적격성평가 PSAT 안내서」에 따르면, PSAT 상황판단 영역(이하 '상황판단')을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 및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대안)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라고 정의 내린바 있다.

이처럼 PSAT은 단편적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 판단 및 의사결정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얼핏 공부하기에 편할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수험생들이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판단을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상황판단을 공부할 때 철저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부방법은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다. 출제자의 시각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 유형을 일반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체득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판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어렵다.

상황판단의 경우, 문항당 약 1분에서 2분 30초의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실제 답안지 마킹시간을 포함하면 1문항당 이보다도 더 적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는 거의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력, 순발력, 시험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 제한 없이 꼼꼼히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한다면 분명히 정답을 고를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특히 상황판단에서 수험생들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적게는 1~2문항에서 많게는 5문항 정도를 풀지 못하고 답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만일 풀 문제들의 대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었고 뒤에서 찍은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었다면 이는 시간관리의 실패로 결국 PSAT 시험에서 불합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PSAT 시험에서 모든 문제의 배점은 4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쉬운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하여 배점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PSAT 시험에서는 시험문제에 대한 감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평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에 시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문제유형별 풀이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02 상황판단에서 요구되는 능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SAT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지식정보 제1항 공직적격성평가 PSAT 안내서」에 따르면 상황판단은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들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평가항목	측정 내용	공직과의 관련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상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개념/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상황 속에 숨어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
추론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추론하는 능력 여러 형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능력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안을 추론하고 분석하는 능력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의 실행전략을 유추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비교·평가하여, 합리적 대안을 설정하는 능력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여러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

즉, 상황판단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렇게 크게 4가지이다. 제시된 이들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한 후 해결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상황판단 접근법

상황판단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통해 해당 영역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판단력, 순발력, 시험 운영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

1 문제의 난도 구별

PSAT 상황판단영역 시험에서 모든 문제는 4점이라는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문제의 난도는 모든 상이하다. 어떤 문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2분 30초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도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난도가 낮은 문제와 높은 문제를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험생마다 체감하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 난도를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략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느끼는 체감 난도에 따라 문제 유형별 난도를 구별하여 이 순서에 따라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되, 개별 수험생들이 본인만의 선호도를 가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문제의 구조파악

PSAT처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험의 경우, 유형별 난도를 구별하여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과 같이 전체 시험운영 측면에서 감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한 문제 내에서의 감각적인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완벽하게 이해한 후 문제를 풀거나 정답을 찾기 위해 모든 선택지나 보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제시문을 빠르게 속독으로 읽어 나가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가려내어 이를 집중적으로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을 읽을 때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데 제시문을 읽을 때 우선 문단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각 문단별로 주제문이나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빠르게 읽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각 문단별 주제문이나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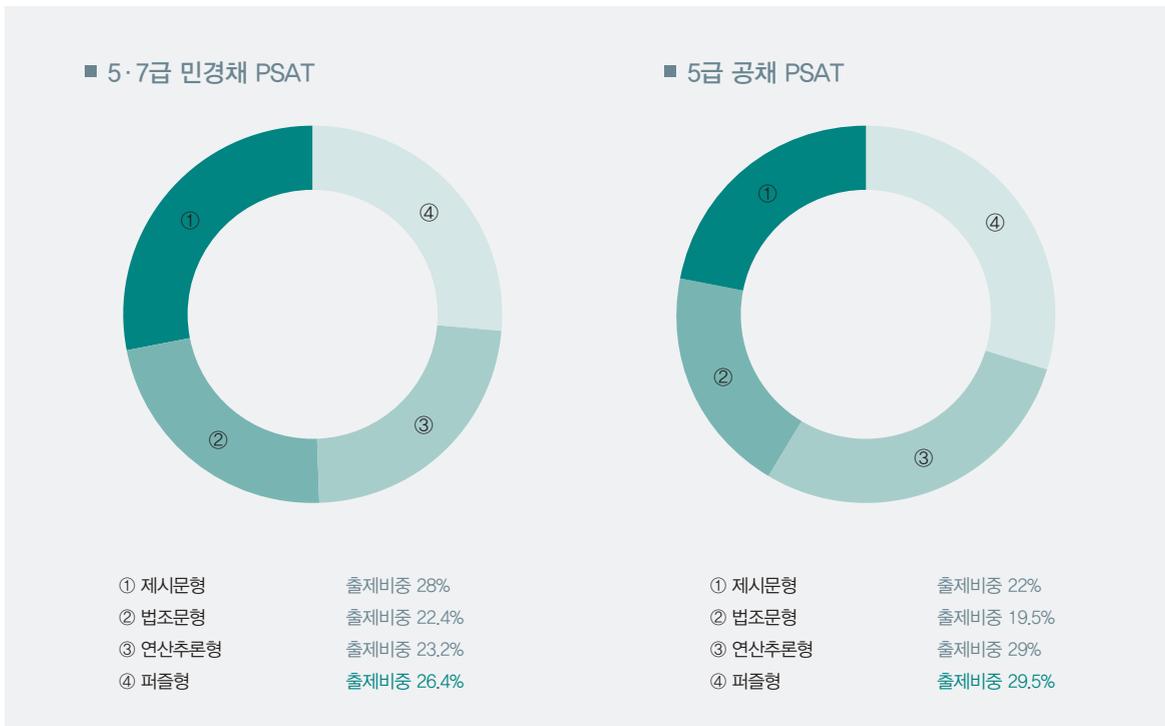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글은 두괄식보다는 미괄식 구조가 많다. 주제문이나 핵심 키워드가 제시문에서 곧바로 제시된다면 문제 풀이가 너무 쉬워져서 수험생들 간에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제시문의 앞부분은 빠르게 읽거나 적당히 생략하며 읽고 뒷부분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주제문이나 핵심 키워드를 찾아, 보다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법이라 할 것이다.

3 시각화

나열된 주제문이나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정답을 수월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표, 도표, 수직선 등 각종 시각적 이미지로 표시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이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도 선지나 보기를 읽는 단계에서 이미 읽었던 제시문의 정보를 망각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선지 또는 보기를 보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기호나 표를 이용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표시, 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각화’ 과정이다. 이는 제시문이 길거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상황을 적절히 조합해야 하는 퍼즐형 문제에 있어 특히 효율적인데, 만약 제시문이 짧거나 간단한 내용이라 온전히 기억에 의존하여 정답을 가려낼 수 있다면 시각화 작업을 과감히 생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04 상황판단 최근 5개년 출제 비중



4 • PSAT 단계완성을 위한 기초기술

05 상황판단 최근 5개년 출제 경향

1 5·7급 민경채 PSAT

연산추론형과 법조문형의 문제 유형은 각각 전체 문제 중 약 20% 내외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형과 퍼즐형의 경우에는 제시문형의 비중이 줄고 퍼즐형의 비중이 늘기 시작해 2015년에 제시문형이 약 40%, 퍼즐형이 약 20% 정도로 출제된 데 반해, 2019년에는 반대로 제시문형이 약 20%, 퍼즐형이 약 40% 정도 출제되었다. (기본서 5·7급 민경채, 5급 공채 출제 비중 참고)

2 5급 공채 PSAT

연산추론형과 법조문형의 문제 유형이 각각 전체 문제 중 약 25% 내외로 출제되었고, 역시 매년 그 비중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민경채의 경우 법조문형과 연산추론형과 출제 비중이 엇비슷하다면, 5급 공채의 경우에는 법조문형보다는 연산추론형의 출제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시문형과 퍼즐형의 경우에는 2015년에는 제시문형이 약 30%, 퍼즐형이 약 20% 정도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제시문형의 비중이 줄고 퍼즐형이 늘어 2019년에는 제시문형이 약 5%, 퍼즐형이 약 40% 정도를 차지해 퍼즐형이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본서 5·7급 민경채, 5급 공채 출제 비중 참고)

3 종합 분석

최근 5년간 민경채와 5급 공채 PSAT 상황판단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법조문형과 연산추론형의 문제 유형을 합한 비중이 민경채의 경우에는 약 40%, 5급 공채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유형의 출제 비중 변화가 매년 크지는 않았으므로, 7급 시험에서도 이 비율대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형과 퍼즐형의 경우 매년 출제 비중에 변화가 있어 왔으며, 퍼즐형의 문제 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퍼즐형 문제를 많이 배치함으로써, PSAT 시험의 난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결국 문제풀이 시간을 길어지게 만들고,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시간 관리 스킬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02 | 상황판단의 유형별 분석

01 상황판단 유형 소개

PSAT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크게 분류해 보면, 제시문형, 법조문형, 연산추론형, 퍼즐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개 유형을 세분화하면 약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형	정보확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
	분석추론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분석한 후 이를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 유형
법조문형	규정확인	주어진 법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 유형
	규정적용	법조문 해석에 더해 특정 상황에 그 조문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 유형
연산추론형	수리계산	주어진 수식이나 공식을 활용하여 점수·금액 등을 산출해 내는 문제 유형
	대입비교	주어진 규칙이나 지침 등을 이용해 나타날 결과를 추론하거나 산출한 점수·금액 등을 비교 또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
퍼즐형	논리퀴즈	제공되는 단편적인 규칙과 조건들을 종합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데 논리적인 추론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
	수리퀴즈	불확정적인 조건들을 처리하는 데 산술적인 계산이나 응용을 요하는 문제 유형
	게임·규칙	퍼즐형 문제 중 다루는 소재가 게임이나 토너먼트, 투표 등인 문제 유형
	최댓값·최솟값 도출	다수의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

02 상황판단 유형 분석

1 정보확인

1) 정보확인이란?

주어진 설명문을 정확하게 읽고 제시문의 내용을 보거나 선택지와 비교하여 정답을 도출해 내는 문제 유형이다. 따라서 정보확인 문제에서는 신속하게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정보확인은 독해력과 이해력의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서 제시문으로 선택되는 글은 거의 모두 설명문이다. 제시된 지문의 주제는 인문학, 역사적 사실, 사회, 행정, 과학, 법학, 각종 제도 등으로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중요한 유형으로서 보거나 선지와 비교하는 것만으로 정답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주어진 설명문을 신속하게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캐치하여야 한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최근 PSAT 상황판단 기출문제에서 정보확인 문제는 난도가 높지 않게 출제되었다. 대체로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며, 모든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해당 유형의 문제를 전부 득점하여 기본점수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란 어렵다. 독해력 향상을 위해 수험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언어논리뿐만 아니라 상황판단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문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방법은 정보확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설명하는 제시문 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발문의 이해

발문에서 묻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옳지 않은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반대로 착각하여 엉뚱한 정답을 골라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표시해 두도록 한다.

② 제시문의 구조파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제시문의 문단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여 글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다. 문단이 바뀔 때 주제가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문이나 키워드를 설정하면서 글의 내용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주제문 또는 키워드의 위치를 확인해 두자.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글에서 주제문이나 키워드는 앞보다는 뒷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확인의 내용구조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가지 특성들을 열거하여 설명하는 ‘병렬식’이나 여러 대상의 특성에 대해 비교·대조하여 설명하는 ‘대조식’ 설명문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의 특성들이 전체 글의 주제나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관리에 유의하면서 주어진 제시문을 신속하게 읽고 문제 풀이에 필요한 대상의 특성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하기 연습 (2018 5급 공채 기출)

Q.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설명에서는 '옳음' 것을 묻고 있다.

[1문단]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 등 12종이 있다.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등 12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

▶ 1문단 요약: 훈장과 포장의 종류와 차이점

[2문단] 훈장의 수여 여부는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야 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2문단 요약: 훈장 수여부 결정절차: 공적 심사 → 서훈 추천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결정

[3문단]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를 통해 수여할 수 있고, 훈장과 부상(금품)을 함께 줄 수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3문단 요약: 상훈법상 훈장 수여내용

[4문단]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금품을 환수한다.

▶ 4문단 요약: 훈장 수여 취소사유

- ①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 ②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 ③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패용될 수 없다.
- ④ 서훈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과 함께 수여한 금품은 그의 소유로 남는다.

|정답| ③

|접근 전략| 훈장과 포장의 분류를 제시하고 훈·포장의 종류를 나열한 후 훈장의 수여와 관련된 상훈법상의 규칙을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전형적인 병렬식 설명문 구조이다. 제시문의 문단별로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여 표시한 후, 선택지를 차례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지 분석| ①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 (X) 훈장은 12종이 있는데,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1가지) 나머지 11종은 각각 5개의 등급(총 55가지)이 있다. 따라서 총 56가지의 훈장이 있는데 모두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으므로 훈장의 명칭은 56개로 구분된다.

②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 (X) 포장은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

③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패용될 수 없다. ▶ (O) 훈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고, 본인의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④ 서훈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X)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과 함께 수여한 금품은 그의 소유로 남는다. ▶ (X)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서훈이 취소되고 수여한 훈장과 금품은 모두 환수된다.

2 분석추론

1) 분석추론이란?

제시문에 주어진 어떤 개념, 조건, 상황,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일정한 과정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추론하는, 정보확인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유형이다. 먼저 제시문의 정보를 확인하는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확인형과 유사하지만,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예측하거나 추론한다는 점에서 분석추론 능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유형인 만큼, 정보확인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은 대부분 설명문이다. 지문의 주제는 인문학, 역사적 사실, 사회, 행정, 과학, 법학, 각종 제도 등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분석추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는 독해력이 중요하다. 즉, 수험생들은 주어진 설명문을 신속하게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캐치하여야 한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최근 상황판단 기출문제에서 분석추론 문제의 경우 대체로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모든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분석추론 문제를 모두 득점하거나 1문제 정도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분석추론형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제시문에 나타난 조건 내지 정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야 하거나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적용이나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도 조건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제시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거나 결과를 계산해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긴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문제해결 방법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부터 풀이함으로써 시간 안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분석추론 문제에서도 발문에서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옳지 않은 것”인지부터 파악하여 강조해 표시해 두자. 이를 통해 제시문을 이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고도 정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단순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없애야 한다.

나아가, 분석추론형에서도 일반적인 정보확인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제문이나 키워드 확인을 통한 제시문의 내용구조 이해를 전제로 하여 제시문 속에서 추론의 근거를 찾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제시문이 상당히 길 경우, 이들 주제문 또는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여 시각화해 둔다면 추후 선택지나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규정확인

1) 규정확인이란?

주어진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파악하여 보거나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으로, 제공된 제시문이 설명문이 아니라 법조문이라는 점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정보확인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규정확인에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법조문 특유의 형식과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규정확인은 주어진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파악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인 만큼, 제시문은 모두 법조문이다. 보통 '제00조' 또는 '제00조(제목)'의 형식으로 주어지며, 현실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법조문의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므로 어떤 소재의 법조문이 출제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체로 법조문들은 비슷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기본 형식과 출제되는 패턴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최근 기출패턴을 보게 되면 민법의 상속, 채권채무 관계 등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출제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쉬운 특별법 조항을 기초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난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대체로 중~하 정도 수준으로 출제된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규정확인에서는 법조문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법조문형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① 법조문의 형식 구성

법조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적 구성단위를 구분하면 '조·항·호·목'으로 나눌 수 있다.

조: 법조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모든 법조문은 각 조에 일련의 숫자를 붙여 규정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보통 '제00조'의 형식으로 주어지나, 때로는 '제00조(제목)'의 형식으로 괄호 안에 제목을 부기하여 해당 '조'가 규율하고자 하는 바를 명시하기도 한다. '조'는 법조문이 규율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된다.

항: 규율하려는 사항이 복잡하거나 다양하여 한 두개의 문장으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거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 아래에 '항'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보통 ①, ②, ③, ...으로 표기되며, '항' 역시 '조'와 함께 법조문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된다.

호: '조'나 '항' 안에 그 요건들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 및 사항을 전부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표기는 1, 2, 3, ...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경우나 요건만을 나열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목: '호'에 열거된 것 중 다시 경우를 나누어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목'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표기는 가, 나, 다, ...로 하며, '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 외에 기본적인 형식 구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조문의 시행일이나 법령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나 소급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부칙'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부칙'은 해당 법조문의 적용 범위나 전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제를 풀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제00조(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나.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 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 다.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② 법조문의 내용 구조

법조문의 실질적 내용은 크게 요건과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조문은 일정한 '요건 또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 약속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때 요건이란 어떤 행위에 앞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 또는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방식이나 절차, 시기 등을 말하고, 효과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행위가 강제, 허용, 금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조문들도 있으나 이는 객관식 시험에서 다양한 보기나 선지를 만드는 데 유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복수의 요건을 가진 법조문이 출제된다. 이때 법조문의 요건들이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시된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주어진 효과가 발생하고, 여러 개의 요건이 'or'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시된 요건들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주어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효과 부분에서도 하나의 단일한 효과보다는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는 복수의 효과를 가진 법조문이 많이 출제된다. 즉,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특수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반대되거나 예외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효과는 '조'나 '항'을 구성하는 기본 문장인 '본문'으로, 예외적인 효과는 '단, 다만, 그러나, ~하되'와 같은 '단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서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 법조문에는 요건과 효과 외에도 주체와 객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한정된 주체나 객체에만 적용되는 법조문이라면 이 또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적용하기 연습 (2014 5급 공채 기출)

Q.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설문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제00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00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00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보증계약은 채무자(乙)가 채권자(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丙)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이때 乙을 주채무자라 한다.

- ①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②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년이다.
- ③ 주채무자 乙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甲은 지체없이 보증인 丙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보증인 丙의 청구가 있는데도 채권자 甲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丙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丙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 ⑤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년이다.

|정답| ③

[선지 분석] ①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X)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요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효과), 甲과 丙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②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년이다. ▶ (X)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요건)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므로(효과), 甲과 丙 간의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3년이 된다.

③ 주채무자 乙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甲은 지체없이 보증인 丙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O) 주채무자(주채)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객체)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요건),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는(주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효과), 주채무자 乙의 채무불이행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④ 보증인 丙의 청구가 있는데도 채권자 甲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丙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丙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 (X)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요건 1), 채권자는(주채)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객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효과 1),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요건 2), 보증인(주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객체) 면한다(효과 2), 따라서 채권자 甲이 보증인 丙의 청구가 있는데도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보증인 丙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⑤ 보증인 丙이 주채무자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 甲과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년이다. ▶ (X) 보증기간을 갱신한 경우(요건 1)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요건 2)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므로(효과), 2년 약정의 보증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인 2년이 된다.

4 규정적용

1) 규정적용이란?

규정확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법조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이나 사례에 그 조문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문제 유형을 의미한다. 법조문의 해석과 내용 이해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규정확인 문제와 유사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추론 능력 및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인 만큼, 규정확인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모두 법조문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규정적용에서도 법조문 특유의 형식과 구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규정확인과 동일한 출제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본적인 법률상식이나 특별법 조항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사례형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다.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아 대체로 중~하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되나, 가끔 주어진 법조문의 내용을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며, 그 결과를 계산해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선지나 아예 다음 문제부터 풀이할 필요가 있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주어진 법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조문 특유의 형식과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규정확인 문제의 접근법인 ‘주체-객체-요건-효과(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며 법조문을 적절히 끊어 읽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5 수리계산

1) 수리계산이란?

제시문에서 수식이나 공식을 주고 특정 값들을 대입하여 점수·금액 등의 산출 또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따라서 수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계산능력이 필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점수·금액 등을 산출해 내는 유형의 문제인 만큼, 제시문은 점수·금액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수식이나 공식, 규칙의 형태로 주어진다. PSAT 상황판단 기출문제에서 수리 문제는 간단한 사칙연산을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차원적인 수학적 개념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때로는 주어진 공식이나 규칙의 길이가 길어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경우나 제시문의 줄글 속에서 직접 수식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리계산의 제시문 자체는 단순한 편으로 공식이나 규칙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착실히 계산하기만 하면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차근차근 계산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수리계산 문제들은 공직자가 되었을 때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행정 수수료, 보조금, 경비 등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어떤 제도를 실행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주어지고 이를 상황에 대입하여 행정 상의 의사결정 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수치 계산을 도출해 내는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대체로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므로 수험생들은 수리계산 문제를 전부 득점하겠다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다만, 공식이 제시문의 줄글로 나타나 캐치하기 어렵거나 간혹 복잡한 계단식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쉬운 문제부터 풀이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보기에 여러 계산문제가 있다면, 쉬운 것부터 계산하여 소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수리계산은 단순한 계산형 문제이다. 즉, 주어진 공식이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수치들을 대입하여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황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 절차, 단계에 따라 침착하게 계산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산만 수행하여 계산 과정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에 제한 시간을 정해두고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적용하기 연습 (2016 5급 공채 기출)

Q.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설문에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 내전을 겪은 甲국은 2015년 1월 1일 평화협정을 통해 4개 국(A~D)으로 분할되었다. 평화협정으로 정한 영토분할 방식은 다음과 같다.
 - 甲국의 영토는 정삼각형이다.
 - 정삼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마주보는 변(이하 '밑변'이라 한다)까지 가상의 수직이등분선을 긋고, 그 선을 4등분 하는 3개의 구분점을 정한다.
 - 3개의 구분점을 각각 지나는 3개의 직선을 밑변과 평행하게 긋고, 이를 국경선으로 삼아 기존 甲국의 영토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 나누어진 4개의 영역 중 가장 작은 영역부터 가장 큰 영역까지 차례로 각각 A국, B국, C국, D국의 영토로 한다.
- 모든 국가의 쌀 생산량은 영토의 면적에 비례하며, A국의 영토에서는 매년 10,00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 각국의 쌀 생산량은 'A국 영토 면적에 비례한 상대적인 크기×10,000가마'가 된다.
- 각국은 영토가 작을수록 국력이 강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는 자국보다 국력이 강한 모든 국가에게 매년 연말에 각각 10,000가마의 쌀을 공물로 보낸다.
- 4개 국가의 인구는 모두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다. 각국은 매년 10,000가마의 쌀을 소비한다.
- 각국의 쌀 생산량은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없는 한 변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국은 10,000가마의 쌀을 보유하고 있다. → 쌀 보유량의 초기값은 각국 모두 10,000가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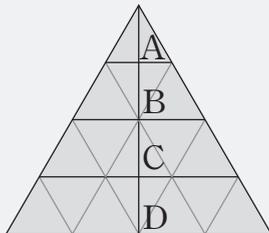
└ 보기 ─

- ㄱ. 2016년 1월 1일에 1년 전보다 쌀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는 D국뿐이다.
- ㄴ. 2017년 1월 1일에 4개 국 중 가장 많은 쌀을 보유한 국가는 A국이다.
- ㄷ. 만약 2015년 여름 홍수로 인해 모든 국가의 2015년도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여도,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0보다 크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영토분할 방식에 따른 A~D 각국의 영토를 그려보면 각국의 상대적인 영토 면적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B국, C국, D국의 영토 면적은 각각 A국 영토 면적의 3배, 5배, 7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국의 연간 쌀 생산량, 공물로 인한 유입과 유출, 연간 쌀 소비량을 계산해 보면 연간 쌀 순증가량을 파악할 수 있다.

(단위: 가마)

평가항목	연간 쌀 생산량(a)	공물로 인한 유입(b)	공물로 인한 유출(c)	연간 쌀 소비량(d)	연간 쌀 순증가량 (a+b-c-d)
A	10,000	30,000	-	10,000	30,000
B	30,000	20,000	10,000	10,000	30,000
C	50,000	10,000	20,000	10,000	30,000
D	70,000	-	30,000	10,000	30,000

보기

- ㄱ. 2016년 1월 1일에 1년 전보다 쌀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는 D국뿐이다. → (X) A~D국 모두 2016년 1월 1일의 쌀 보유량은 1년 전보다 30,000가마 증가하였다.
- ㄴ. 2017년 1월 1일에 4개 국 중 가장 많은 쌀을 보유한 국가는 A국이다. → (X) A~D국 모두 매년 30,000가마의 쌀이 증가하므로 2017년 1월 1일에는 4개 국 모두 동일하게 70,000가마의 쌀을 보유하게 된다.
- ㄷ. 만약 2015년 여름 흉수로 인해 모든 국가의 2015년도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여도,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0보다 크다. → (O) 만약 여름 흉수가 없었다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모두 동일하게 40,000가마이다. 그런데 여름 흉수로 인해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A국은 5,000가마가 줄어 35,000가마, B국은 15,000가마가 줄어 25,000가마, C국은 25,000가마가 줄어 15,000가마, D국은 35,000가마가 줄어 5,000가마의 쌀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0보다 크다.

- | 선지 분석 | ① ㄱ ➡ (X)
 ② ㄴ ➡ (X)
 ③ ㄷ ➡ (O)
 ④ ㄱ, ㄷ ➡ (X)
 ⑤ ㄴ, ㄷ ➡ (X)

6 대입비교

1) 대입비교란?

제시된 규칙, 지침, 방법 등을 이용해 나타날 결과를 추론하거나, 산출한 점수·금액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선정하거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등의 작업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대입비교 문제들은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서 수리계산과 같이 계산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대입, 비교, 선택, 추론 등의 추론적 사고력도 함께 요구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수리계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규칙이나 지침의 형태로 주어진다. 즉, 계산법, 표기법, 신청방법, 표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든 규칙이나 지침이 대입비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주어진 규칙이나 지침이 한 번에 여러 개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는 등 예외 조건을 추가하여 상당히 복잡하게도 출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어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작업해 나가면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대입비교에서는 공직자가 되었을 때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계산법, 표기법, 신청방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어진 상황을 이에 대입하여 순위 선정, 대안 도출 등 행정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상~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며 수험생들 간 변별력도 큰 유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입비교 문제들을 정보확인, 규정확인, 수리계산 문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득점하거나 1문제 정도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시문의 규칙이나 지침이 상당히 복잡하거나 예외조건, 변형조건 등 소위 '함정'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문제풀이 과정 중 한 부분에서라도 실수하는 경우에는

특점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다른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 하도록 한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대입비교 문제는 주어진 규칙이나 지침 등을 상황에 대입해 나타날 결과를 추론하거나, 상황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수치들을 규칙, 지침 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계산해 낸 후 이를 이용해 비교,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수리계산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규칙이나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요구하는 순서, 절차, 단계, 지시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규칙에 예외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는 함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꼭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논리퀴즈

1) 논리퀴즈란?

부분적으로만 상황을 설명하는 단편적인 규칙과 조건들을 조합하여 경우를 따지는 문제 유형으로서 논리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추론하여 경우를 따지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주어진 단편적 규칙과 조건들을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 유형의 문제인 만큼, 제시문은 여러 조건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형태로 주어져서, 설명 방법으로 도표나 그림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거나 이들 조건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밝혀내는 등 제시된 조건들이 설명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험생들은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해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주어진 정보와 선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가능한 경우를 따지거나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결과를 대응시키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논리퀴즈 문제는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출제패턴만을 학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상~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기는 하나,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이며 수험생들 간에 변별력도 큰 유형이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1문제 정도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논리퀴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조건들 중 출발점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되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을 파악한 후(이러한 전제조건은 발문에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발문을 읽을 때부터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기본조건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능한 경우가 단 한 가지인 확정적인 정보나 가능한 경우의 수가 적은 정보부터 파악해야 한다.

쉽게 출제될 경우, 어느 한 조건에서 정보가 바로 발견될 때도 있지만 여러 조건들을 조합하여 발견한 새로운 조건에서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도표나 그림 등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해 주어진 정보들을 읽고 정리해 나가면서 실마리가 되는 조건을 빠르게 발견하여야 한다. 이후 제시된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하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 쉽게 정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하기 연습 (2018 5급 공채 기출)

Q.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戊가 먹은 사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설문에서는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戊가 먹은 사탕에 대한 '옳은' 선지를 묻고 있다.

사과 사탕, 포도 사탕, 딸기 사탕이 각각 2개씩 있다. 다섯 명의 사람(甲~戊) 중 한 명이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고, 다른 네 명이 남은 사탕을 각각 1개씩 먹었다. 이 사실만을 알고 甲~戊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모두 진실을 말하였다.

甲: 나는 포도 사탕을 먹지 않았어.
 乙: 나는 사과 사탕만을 먹었어.
 丙: 나는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어.
 丁: 나는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어.
 戊: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두 명 다 알 수는 없어.

- ① 甲, 포도 사탕 1개
- ② 甲, 딸기 사탕 1개
- ③ 丙, 포도 사탕 1개
- ④ 丙, 딸기 사탕 1개
- ⑤ 戊,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

|정답| ①

[해설] '다섯 명의 사람 중 한 명이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고, 다른 네 명이 남은 사탕을 각각 1개씩 먹었다'는 것과 '乙이 사과 사탕만을 먹었다'는 것이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되는 확정적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나머지 정보들을 추가로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확정적인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탕	사과 사탕 1개+ 딸기 사탕 1개	사과 사탕 1개	딸기 사탕 1개	포도 사탕 1개	포도 사탕 1개
먹은 사람		乙			

이때 丙은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고, 丁은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다고 하므로,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은 甲 또는 戊가 된다.

그런데 만약 戊가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었다면, 甲은 포도 사탕을 먹지 않았다고 하므로,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이 甲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두 명을 다 알 수 없다는 戊의 진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은 甲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만약 戊가 딸기 사탕을 먹었다면, 戊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이 甲과 자신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두 명을 다 알 수 없다는 戊의 진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戊는 포도 사탕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탕	사과 사탕 1개+ 딸기 사탕 1개	사과 사탕 1개	딸기 사탕 1개	포도 사탕 1개	포도 사탕 1개
먹은 사람	甲	乙		戊	

따라서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은 甲이고, 戊가 먹은 사탕은 포도 사탕 1개가 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선지 분석| ① 甲, 포도 사탕 1개 ➡ (O)

② 甲, 딸기 사탕 1개 ➡ (X)

③ 丙, 포도 사탕 1개 ➡ (X)

④ 丙, 딸기 사탕 1개 ➡ (X)

⑤ 戊,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 ➡ (X)

8 수리퀴즈

1) 수리퀴즈란?

불확정적인 규칙과 조건들을 이용해 계산을 하며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 유형이다. 논리퀴즈와 마찬가지로 분석력, 추론력이 요구되지만, 수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계산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제시문이 여러 조건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형태로 주어지며, 수식, 도표, 그래프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주어진 조건이나 규칙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도표나 그래프 등 시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주로 주어진 규칙과 조건들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 결과와 선지의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난이도는 상, 중, 하 고르게 출제되기는 하나, 논리퀴즈와 함께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시험에서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난 후 수리퀴즈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시간 배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수리퀴즈 문제는 논리퀴즈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여러 조건들 중 시발점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어떤 조건은 경우의 수가 많아,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풀이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조건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발문이나 제시문에 언급된 조건들 중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 있는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단 한 가지이거나 다른 조건들에 비해 그 수가 적은 조건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나 규칙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도표나 그래프 등 시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9 게임·규칙

1) 게임·규칙이란?

단편적인 규칙과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맞추어 경우를 따진 후 정답을 찾는 퍼즐형 문제의 일종이지만, 소재가 게임이나 토너먼트, 투표 등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게임·규칙 문제는 경우를 따질 때 논리적인 추론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논리퀴즈와 동일하게, 산술적인 계산이나 응용을 요하는 경우라면 수리퀴즈와 동일하게 접근하면 된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게임·규칙은 게임, 토너먼트, 투표 등에 관한 규칙 및 조건을 종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여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유형의 문제인 만큼, 제시문은 여러 경기 조건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형태로 주어지며, 이를 설명하는 도표나 그림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주어진 규칙과 조건들을 이용해 게임, 토너먼트 또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게임·규칙 기출문제들은 상, 중, 하 난이도 모두 고르게 출제되기는 하나, 이 또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여기며, 수험생 간 변별력도 큰 유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난 후 게임·규칙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시간 배분에 유리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수리퀴즈와 동일하게 접근하면 된다. 즉, 문제에서 시발점이 되는 조건을 찾고 여러 조건들 중 문제의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10 최댓값·최솟값 도출

1) 최댓값·최솟값 도출이란?

다수의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값을 구하는 퍼즐형 문제이다. 즉, 불확정적인 제약 조건들을 종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추론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유형의 문제이다.

2) 최근 5개년 발문과 지문의 소재

최댓값·최솟값 도출은 불확정적인 제약 조건들을 종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추론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유형의 문제인 만큼, 제시문은 여러 개의 조건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형태로 주어지며, 이는 도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3) 최근 5개년 기출패턴

주어진 규칙과 조건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시간, 인원수 등의 범위를 추론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해를 도출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문제풀이의 핵심인 “경우를 따져 결과를 도출한다.”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최댓값·최솟값 도출의 경우 상, 중, 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기는 하나,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퍼즐형 문제 유형의 하나로서 수험생들 간에 변별력도 큰 유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최댓값·최솟값 도출 문제를 확인한 후 풀이가 어렵지 않은 경우 문제를 그대로 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문제에 먼저 접근하도록 한다.

4) 효과적인 접근방법

다른 퍼즐형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여러 조건이나 규칙들 중 시발점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 예외조건 등을 빠르게 파악한 후, 경우의 수가 적은 것부터 골라 값을 찾아내도록 한다.

그리고 최댓값·최솟값 도출 문제의 경우 가능한 극단의 값을 구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가능한 최댓값이나 최솟값을 찾아낸 후 이를 제약 조건에 적용하였을 때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만약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차선의 값을 검토하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정답을 도출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자.